

소그룹과 여선교회 모임을 위한

2025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프로그램 교재

믿음의 행진

페이 월슨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



소그룹과 여선교회 모임을 위한
2025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프로그램 교재



믿음의 행진

페이 윌슨,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믿음의 행진: 2025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자료

© 2025 연합감리교회 기존 여성교회 (UMW)와 여성교회의 새 이름(United Women in Faith)에게 모든
판권이 있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상업 목적이 아닌 소그룹 참가자들에게 이 프로그램 교재의 복사를 허락한다. 사용할
때에, *믿음의 행진: 2025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교재* 라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 그 외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프라비나 발라순다람(Praveena Balasundaram)의 **PBalasundaram@uwfaith.org**로
연락 바란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한글 성경은 표준새번역을 사용함 © 1989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전세계 모든 저작권리를 보유함.

교재 내용 책임자: 프라비나 발라순다람

저자: 페이 월슨 &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

검토 위원: 매리앤 버기즈, 새넌 프리디, 어멘다 마운튼

편집자: 미셸 오까바야시

아트 책임자: 레 그랜트 Rae Grant

앞뒤 표지 디자인: 아이스톡 에피큐리안 iStock epicurean/ 아이스톡 줄리아 메쉬넛츠 iStock Julia Mashinets

페이지 디자인: 낸시 레나드 Nancy Leonard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비전

이 세상의 여성들,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선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들이 지역 및 세계공동체에 영감을 불어넣고,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영성 형성, 지도력 개발, 창의적인 친교, 그리고 교육을 통해 연대와 양육을 추구한다.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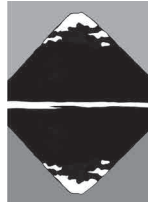
여선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여성 공동체를 지향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 마가복음 4:35-41



차례

여는 말	7
1사분기: 우리를 비추는 물-잠언 27:19.....	17
1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18
2월: 성경과 찬양이 우리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
3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경험과 의식은 무엇인가요?	28
2사분기: 고인 연못같은 물-시편 42:1-3.....	35
4월: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세월 속에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변해 있나요?.....	36
5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42
6월: 결단하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46
3사분기: 폭풍같은 물-마가복음 4:35-41; 이사야 43:1-2.....	51
7월: 예수님은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나요?.....	52
8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실천은 어떤 것일까요?.....	58
9월: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64
4사분기: 환대의 물-이사야 58:10-12	69
10월: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70
11월: 범사 감사 헌금-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	76
12월: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사랑과 실천을 어떻게 알고 행하고 있나요?	82
저자 소개	88
2026년 약정 헌금 예배:	
물과 믿음으로	90
2025년 기도와 절제의 날 예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여성들	98



여는 말

메이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거실 의자 곁의 전등 테이블 위에는 도자기로 만든 컵받침이 있다. 이 컵받침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친숙한 메인 폭포인 펜실베이니아 주의 포코노 산에 있는 부쉬킬 폭포(Bushkill Falls) 그림이 있다. 우리집 냉장고 자석에는 “나는 레드 트레일(Red Trail) 둘레길을 걸었다”는 자랑스러운 글이 적혀 있다. 이 트레일은 2.5 마일의 길인데 3층 높이의 바위와 나무 뿌리를 오르거나, 두 시간 정도 걷는 동안에 열 개 이상의 폭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내 옷장에는 “나는 레드 트레일을 등반했다.”고 적힌 티셔츠가 두 개나 있다.

이 물건들은 2-3층 높이의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내 추억을 상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이다. 부서지는 폭포 소리, 쏟아내리는 폭포로 소용돌이치는 개울물들, 그리고 길가를 따라 나타나는 잔잔한 연못들은 나의 삶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생각나게 한다.

노라의 이야기:

신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할 때에, 중심과 기초를 놓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마음 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하였다. 제시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바다에 대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특별히 이 바다는 필리핀에 있는 갈색 모래밭이 있는 곳으로 내가 20야드 정도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던 곳이다. 이 곳은 입구라서 물이 잔잔한 곳이었다. 여기서 나는 광활한 바다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면서, 안전함과 떠오름과 평화를 발견한다.

물은 씻어내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물은 침식하고, 홍수를 일으키고,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우리를 지탱하고 뜨게 하는 힘도 있다. 한 때 수영

선수였던 나에게 물은 친구이자 적이다. 나의 코치는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나 높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게 자주 말했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 어떤 날은 물과 싸우면서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날은 물을 손바닥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나는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물의 움직임과 흐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페이와 노라의 공동 이야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올 해 프로그램 교재에서, 우리는 성장 혹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진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하여 세대 간의 대화를 탐구한다. 우리의 신앙을 물의 여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 이야기들은 전진과 후퇴, 절정과 낙하, 그리고 고여 있는 연못과 폭풍의 여정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디모데후서 1:5).” 라고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의 기억을 사용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와 믿음을 전하여 준 사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

세대 간의 이야기들

2025년 프로그램 교재는 어머니들과 딸들, 자매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식구들과 같은 여성들의 대화들이 담겨있다. 대화가 녹화된 인터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고 도전했던 경험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서 교회의 현재 상황에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조직들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교회”와의 관련성이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세대로부터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좋은 시절과 어려운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나?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또한 우리는

현재 무엇이 변하고 있고,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는가?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의 부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재를 통하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와 이해가 열리는 대화가 풍성해 지기를 소망한다.

인터뷰에 참가자들에게 물어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나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느끼나?
- 나에게 믿음은 어떻게 전해졌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
- 성경, 활동, 노래 중 어떤 경험이 나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나?
- 나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 다양한 종교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이 형성되었나?
- 나의 세대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나는 반항하는 자인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는 자인가?
-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 라는 여성 영웅들이 있었다: 현재 또는 이전 세대 중에 나에게 여성 영웅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어떤 배움을 얻었나?
-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받았던 도전들이 있었나, 혹은 지금 받고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
- 믿음의 역경과 차이 그리고 교회의 변화가 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생명력이 있고 강한 믿음을 지켰나?
- 나 자신,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

위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과 묵상들은 이 교재 안에 소개되어 있고 동영상 자료로도 담겨 있다. 참가자들 또한 위의 물음에 답해 볼 것을 격려한다. 참가자들이 여선교회 회원들,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동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하기로 헌신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서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곤 하는 주제에 대하여 솔직하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 그들의 표현과 목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편집 없이 실황으로 녹화하였다. 우리는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모임에서 잘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프로그램 교재를 위한 모든 세대 간의 목소리 (Intergenerational Voices) 동영상들은 다음의 유튜브 주소를 통해 재생목록(playlist)을 찾을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거룩한 사람들로 인도하기 위한 초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가지 관점이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발걸음을 함께 하기 위한 자매애로 초대한다. 엉망진창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말끔한 끈으로 묶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듣고 구하라. 거룩한 사람들로 나오게 하라. 종종 가장 강한 연대감과 가장 강한 믿음의 계시는 단절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존중과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할 때 온다.

믿음을 정의하기

2025년 프로그램 교재의 목적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자 함이다: 형태가 다르고 확장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이 교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 교재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동아리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대화의 소재들을 제공한다.

매달 프로그램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들의 삶의 발걸음, 어려움, 전환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망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들이 제공된다. 동영상의 대화들과 각각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길을 펼쳐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 로이스와 유니게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믿음의 유산들과 연결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생겨나는 대화는 개개인들이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아들의 하나님(Orphans of God)”이란 찬양에 있는 가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¹

이 프로그램 교재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구조의 변화와 분열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믿음 여정의 모든 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교재는 활기차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라고 요청한다. 어떤 교회들은 “모이면 예배 드리고, 흠어지면 섬기라”는 구절을 선포한다. 이 프로그램 자료는 각 참석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눌 방법에 대한 비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 오는 일에 다시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다시 결단한다. 우리 품에 안긴 아기를 우리가 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십대들을 바라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확장된 관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것이다.

프로그램 자료의 사용법

이 프로그램 교재는 사분기별 주제인 **우리를 비추는 물, 고인 연못같은 물, 폭풍같은 물**, 그리고 **한대의 물**에 따라 12개의 월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기별 주제에 따라 참가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찬양, 성경 연구, 체험, 도전,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온 정성을 부어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탐구하게 한다. 월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다양한 성경 말씀 연구에 참여하도록 꾸며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들을 사용하여 믿음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월별 프로그램은 45-60분 정도 진행되도록 짜여져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때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진행을 이끌어 갈 책임 인도자 한 명이 필요하다. 특별한 순서를 통해 참석자들 가운데서 다양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동 인도자와 함께 책임 인도자가 진행할 수도 있다. 소그룹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동 인도자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공동체로 부르심
- 성경 말씀 나누기
- 세대 간의 이야기들
- 묵상과 나눔
- 창의적 활동
- 마무리와 결단하기

2024년 독서 프로그램 책이었던 로빈 월 키머러의 「향모(Sweetgrass)를 따으며」가 이번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 사용되었다. 일 년 동안 진행될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참석자들이 이 책을 각자 구입하거나 몇 권을 비치해 두면 유익할 것이다.

사분기 전체를 한 눈에 보기

이 프로그램 교재는 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물에 대한 경험들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한다.

1사분기: 우리를 비추는 물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들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바다, 개울, 강물, 그리고 작은 시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물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물들은 우리를 불러내어 삶에 대하여 앉아서 생각하고 사색하게 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믿음과 실천 속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한다.

2사분기: 우리는 각자의 삶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과 성장이 편안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린 시간들의 상징으로서 고인 연못의 물을 생각해 볼 것이다. 고요한 물을 가진 연못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여 있는 연못은 그렇지 못하곤 한다. 고여 있는 물에는 이끼가 잔뜩 끼고,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물장구를 치는 오리나 침범거리는 물고기들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생생한 믿음을 더이상 붙들지 않고 멈춘 것 같이 보인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살아갈 능력을 가로막는 파편과 자만심을 옆으로 쓸어내고,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위대한 친족 공동체가 이 땅에 확장시키는 충만한 삶으로서 믿음의 삶을 공유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못이 고인 물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자리로서 그 연못을 구출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3사분기: 우리는 폭풍같은 물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적 체험들을 들여다 볼 것이다. 삶, 믿음, 그리고 공동체는 폭풍을 불러 일으킨다. 인간 관계는 어렵다. 교회는 갈라서려고 투표를 한다. 조직적인 불평등은 난폭하다. 사회와 세대의 기대를 바꾸는 일은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공간이 드러나거나 연결시키는 다리를 인식하게 된다. 예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서 폭풍의 파도를 타면서 폭풍을 맞고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와 신뢰를 구하라는 과업이 맡겨진다. 유명한 복음송 작가인 찰스 알버트 틴들리(Charles Albert Tindley)는 이렇게 노래한다. “삶의 폭풍이 거세게 일어날 때에는, 내 곁에 머물라.”² 우리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삶이 폭풍의 시간에 있을 때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4사분기: 우리는 환대의 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9:41).”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조직의 핵심 요소인 은혜 안에서 자매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작사가 멜라니 드모어(Melanie DeMore)가 썼듯이, “우리는 한 발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 놓음으로써 사랑을 이어간다.”³

프로그램 준비물

인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로 소그룹으로 대화 할 수 있는 지역 교회나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U자 모양으로 의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도자들을 잘 볼 수 있고 참석자들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 테이블이 있으면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에 편하다.

또한 소그룹들은 각자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아마도 어떤 회원은 기꺼이 자신의 집에서 모임 갖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이 공원의 테이블을 사용하거나 자기들의 의자를 집에서 가져와서 공원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원들은 세대간 이야기 동영상을 각자의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물

- 인터넷 연결
- 프로젝터/화면 혹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개인 컴퓨터
- 다양한 번역의 성경책들
- 마커
- 펜과 색연필
- 색 도화지
- 흰 종이 혹은 빛을 내는 라이트 페이퍼(light paper)
- 여러 가지 색깔의 인덱스 카드 (3 x 5인치 혹은 4 x 6인치)
- 페인터 테이프(painter tape)
- 물 풍경이 있는 그림들

온라인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디지털 자료 사이트인 uwfaith.org/digital에서 그룹과 개인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 자료 전자 문서를 구할 수 있다. 인도자들과 회원들은 bit.ly/2025DigitalProgramResource에서 프로그램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교재를 책자로 구매했다면, bit.ly/2025PR-addon에서 전자 문서로 된 교재를 5달러 만으로도 살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디지털팀에서는 저자와 여선교회 본부의 직원들이 인도하는 매월 열리는 공동체 모임(Community Gatherings)을 열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묵상, 소그룹, 대화, 그리고 살아있는 활동들을 통하여 각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동체 모임은 인도자들이 개교회에서 여선교회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달의 프로그램 보다 한 달 앞서 진행된다.

공동체 모임 프로그램은 줌(Zoom) 또는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화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줌 전화번호(Zoom phone number)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분기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준비물 재료는 각 회원들에게 프로그램 전에 미리 전달될 수 있다.

음악

이 프로그램 교재 속에는 추천된 찬양곡들이 있다. 기독교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CCLI)과 원 라이선스(One License) 허가를 받은 노래일 경우에 CCLI와 One License 회원이 있다면 개교회 모임에서 찬양곡을 화면에 띄우거나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다. 가사를 녹음하거나 인쇄하면 안 된다. 유튜브 동영상은 인도자나 음악가들이 곡조를 맞추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룹으로 모임 경우에는 각자의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개인별로 시청할 수 있다. 콤팩트 디스크(CD)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 한 눈에 보기

1사분기: 우리를 비추는 물-잠언 27:19

1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2월: 성경과 찬양이 우리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경험과 의식은 무엇인가요?

2사분기: 고인 연못같은 물-시편 42:1-3

4월: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5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6월: 결단하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3사분기: 폭풍같은 물-마가복음 4:35-41; 이사야서 43:1-2

7월: 예수님은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나요?

8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실천은 어떤 것일까요?

9월: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사분기: 환대의 물-이사야 58: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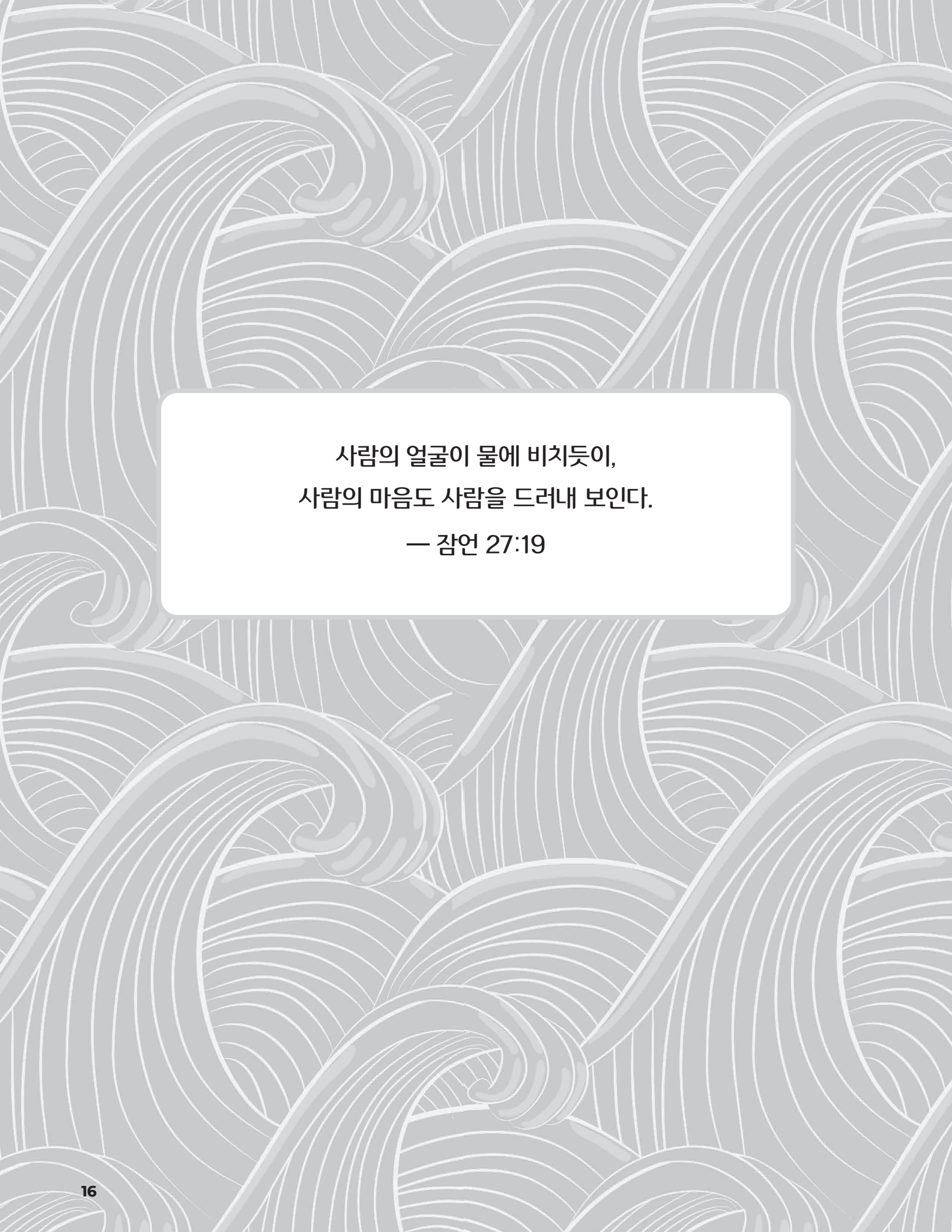
10월: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1월: 범사 감사 헌금-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

12월: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사랑과 실천을 어떻게 알고 행하고 있나요?

미주

1. 조엘 린지 그리고 트윌라 라바, “고아들의 하나님,” Joel Lindsey and Twila LaBar, “Orphans of God,” Capitol Cmg Paragon o/b/o Bridge Building Music, Vacation Boy Music, Upright Grand Music, and New Spring Pub Inc., 2005.
2. 찰스 알버트 틴들리, “내 옆에 머물라,” Charles Albert Tindley, “Stand By Me,” 1905 (Public Domain).
3. 멜라니 드모어, “사랑으로 나아가라,” Melanie DeMore, “Lead with Love,” 2017.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 잠언 27:19



1사분기: 우리를 비추는 물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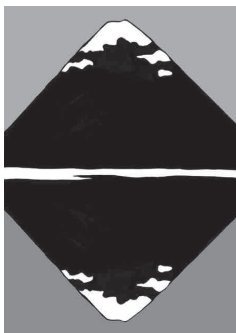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1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설날	2	3	4
5	6	7	8	9	10	11 인신매매 인식의 날
12 인권의 날	13	14	15	16	17	18
19	20 마틴 루터 킹 기념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계의 소외 열대 질환의 날	



1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핵심 주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모임 준비를 위한 목상

첫 모임에 대한 안내를 할 때에, 참석자들에게 이 프로그램 모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초대 시간을 포함하라. 목상에 도움에 될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나의 믿음 중에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물려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 나의 신앙의 어떤 점이 나만의 고유한 부분인가요?

(이 달의 교재 뒷부분에 초대의 샘플이 있다.)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 또는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읽기 자료의 인쇄물 혹은 온라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라. “마중” 시간을 주어서 참여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먹거나, 또는 참가자들에 나중에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보낼 시간을 주라. 참가자들이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새해에 함께 모이니 얼마나 복된지요! 올해, 우리의 프로그램 공부는 우리 믿음의 미래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세대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 공동체로서 앞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의미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찾아냄으로써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미에 대하여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심: 감각으로 하는 묵상 (10분)

비록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감각으로 하는 묵상을 10분 동안 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 묵상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몸이 함께 함을 더 깊이 느끼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치가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가 함께 있음도 가치가 있음을 알도록 모두를 초대하라. 하지만 우리들의 욕구를 존중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참석자들이 원한다면 아래에 제시된 순서를 따라 간략한 묵상을 한다.

오늘 모임은 감각으로 하는 묵상으로 시작하라. 참석자들에게 발을 바닥에 똑바로 대고 앉거나, 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면서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초대하라.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두 눈을 감을 수 있고, 온라인 모임이라면 화면을 끌 수도 있다. 인도자의 말 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다면 배경 음악으로 “살아계신 성령님(Spirit of the Loving God)” 찬양이 은은하게 들리게 할 수도 있다.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참가자들이 온다면, 그들의 참여를 인식하면서도 묵상에 계속 집중하게 하라. 참가자들이 다음의 안내문에 따라 참여하도록 인도하라.¹

- **우리의 몸에서 시작하라.** 나의 몸의 감각들을 느껴보라. 바닥에 닿아 있는 발을 어떻게 느끼는지, 손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의자나 방석이 내 몸을 받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라. 옷의 촉감, 옷의 어울림, 그리고 따스함 정도는 어떠한가를 옷에서 느껴보라. 등의 뼈와 위치를 느껴보라. 숨에 주목하면서 코가 하는 일과 편안함을 느껴보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 쉬면서 느껴보라.
-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소리에 집중해 보라.** 멀리서 들리는 소리, 이 모임 밖에서 들리는 소리,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건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끼려고 해 보라.
- **이번에는 냄새에 대해 집중해 보라.**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나? 향수 냄새? 몸 냄새? 냄새가 약한 것도 있나?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신경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면, 자신의 감각에 대한 변화를 느껴보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가?
- **이제 맛에 대해 집중해 보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맛인지 주목해 보라. 치약 맛? 커피 맛? 마지막 식사는? 배고픔?
- **이번에는 보는 것에 집중해 보라.** 눈을 감고 있었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 보라. 눈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눈을 크게 떴 보라. 멀리 있는 것에 주목해 보라. 색깔과 질감, 움직임, 그리고 고요함을 눈 여겨 보라. 여러분의 뒤 중간에 나에게 좀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라. 빛 혹은 빛의 없음을 바라보라. 이제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에 관심을 돌려보라. 당신의 가까운 주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라.
- **다시 눈을 감고 나의 마음에 주목해 보라.** 크고 작은 생각들,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생각들에 주목해 보라. 판단하거나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저 생각에 집중해 보라. 그 생각들이 흘러가게 하라.



기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알려져 계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열린 마음의 영, 배움의 영, 그리고 연결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석자들에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다시 뜨고 묵상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더 간단하게 명상하기: 배경 음악이 조용히 흐르는 동안에 참가자들에게 감각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 보게 하라.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감각을 통해 깨달음을 넓혀보라고 하라.



성경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4:7-15 (2분)

전체 그룹을 위해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4:7-15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달마다 성경 말씀 읽을 낭독자를 정해서 진행하라.

이번 달에 읽을 성경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듣는 동안, 각자 자기의 감각을 통해 말씀을 인식하면서 듣게 하라.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주목하라.



그룹 묵상 (10분)

새로운 눈으로 이 익숙한 성경 본문을 읽으니, 물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이 물이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져서 마음대로 흘러 넘치는 차가운 물이면서도 퍼 올리는 항아리 모양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물의 투명함은 햇빛을 반사하고, 더운 날에 목을 축이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다. 물에 대한 경험은 시간과 세대를 넘는 중요한 것 즉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함께 하신다. 이 생명의 물은 차가울까 아니면 이상하리 만치 따뜻할까? 내가 만져 볼 수 있을까? 내가 맛볼 수 있을까? 이 생명의 물은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려져왔나?

물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다. 생명의 물에 대한 세례식부터, 물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다. 세대를 거치면서 이 물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다.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 교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소망과 꿈을 되돌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물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경험에 의해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전통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을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의 생명의 순환을 지속한다.

개인 묵상

신디(Cindy S. Lee)는 그녀의 책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형성하기: 서구 중심적 영성 형성으로부터 벗어나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영성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은 영성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삶의 향기”를 풍긴다. 우리는 복잡한 감정, 피곤에 지친 몸, 가정사, 문화적 경험, 일터에서 좌절, 참 공동체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의 평범한 삶의 반복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낸다. 영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하나님다움 (Godness)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렸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인간다움(humanness)을 주님께 가져간다. 그래서,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영성 형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영혼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인 방법들을 포함한다.²

아래 묵상 질문 중 하나를 고른 후 여러분의 대답을 창의적인 느낌에 따라 글이나 그림으로 답해보라.

- **느껴보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가져갈 나의 “삶의 향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와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는?
- **생각하기:** 나는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나는 자신의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겹치는 점은 무엇인가?



세대 간의 이야기들 (23분)

리비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역 선교사인 **핀다 퀴와(Finda Quiwa)**의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가 똑같은 수 없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 라틴 아메리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차 소아레스(Andrea Reily Rocha Soares)**는 사역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레베카 아세디요(Rebecca Asedillo)**는 디아코니스(deaconess)이자 세계 선교부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사역자로 디아코니스들이 필리핀 연회 중에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퇴장했어야만 했던 일에 대하여 전한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전체 그룹에서 이야기 나누기

-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었나? 어떤 이야기에 마음에 끌렸나?
- 나의 고유한 경험을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



창의적 활동: 웨슬리의 사변형³ (10분)

모임 전 묵상, 개인 묵상, 그리고 동영상 이야기에서 얻은 생각들을 가지고 전체 모임에 모이라.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웨슬리의 사변형을 사용하여 우리 믿음의 경험들을 온전히 짚어볼 것이다. 웨슬리의 사변형은 우리 믿음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인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을 강조하는 신학적 묵상의 유용한 방법이다.

종이와 펜과 마커 그리고 다른 미술 도구들을 사용해서 네 영역으로 된 자신의 사변형을 그려라. 각각의 영역에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이라고 제목을 쓰라. 다 그렸으면, 잠시 나의 믿음 여정에 대하여 생각하라.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은 누구였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떤 가르침, 성경 구절, 그리고 찬양들인가?

사변형의 각 면에 해당하는 곳에 대답이 적힌 종이를 배열해 보라. 한 영역 이상에 걸치는 답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었나? 어떤 한 면은 다른 면보다 많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나? 네 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 이 사변형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옆 사람 혹은 소그룹으로 내가 관찰한 점들을 나누어 보라.



마무리와 결단하기 (2분)

모든 참가자를 한 그룹으로 모으라. 돌아가면서 각 사람이 이 모임 동안에 다른 참가자, 서로 나눈 메시지, 각자의 믿음의 여정, 혹은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을 받은 순간에 대하여 나눌 기회를 주라. 모든 사람이 경험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면, 기도로 모임을 마치라.

기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들의 목상, 나눔, 그리고 연결됨이 각자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프로그램

여러분은 올 해 새로운 프로그램에 초대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져 보세요.

나의 믿음의 어떤 부분이 전통과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 받았습니까? _____

나의 믿음의 어떤 부분들이 나 자신의 고유한 것입니까? _____

당신의 자매들과 믿음의 여정에 대한 탐구를 준비하세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미주

1. 카라 브래들리로부터 영감을 받음. “당신의 감각을 탐색하기 위한 목상,” Mindful, 2019년 1월 2일, mindful.org/a-meditation-for-exploring-your-senses. “A Meditation for Exploring Your Senses,” Mindful, January 2, 2019, mindful.org/a-meditation-for-exploring-your-senses.
2. 신디 S. 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형성하기: 서구 중심적 영성 형성으로부터 벗어나서」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2년), 3-4쪽.
3. 라이언 던, “네 가지 신학적 지침,” 연합감리교회, 2020년 2월 19일, umc.org/en/content/our-four-theological-guidelines.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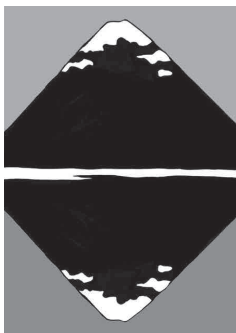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2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흑인 역사의 달
2 그라운드 호그 데이 (Groundhog)	3	4 대중교통 평등의 날	5	6	7	8
9	10	11	12	13	14 발렌타인의 날	15
16	17 대통령의 날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월

성경과 찬양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들은?

핵심 주제: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준비물

- 참석자 한 사람당 4 x 6 인덱스 카드 두 개씩 담겨진 바구니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연필, 또는 펜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도화지
- 흰 종이 혹은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물에 반사체가 있는 사진들 (온라인이나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다.) 1
-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사로 맞이하라. 각 사람마다 인덱스 카드 한 장, 색도화지 한 장, 밑줄이 그어져 있는 종이 한 장, 마커와 펜 하나씩 챙겨서 자기 자리에 앉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5분)

다음의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으면서(또는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강가에서 만나보자,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389장
(곡조: youtu.be/v1qnjd23YQM)
- 바벨론 강가에서, Worship and Song 169장
(곡조: youtu.be/CNOTU-Sp8DE)

참석자들에게 가사와 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찬양을 들게 하라. 사람들은 허밍으로 따라하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도 좋다고 알려 준다. 찬양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인덱스 카드에 마음에 떠올랐던 단어나 구절들을 적게 하라. 찬양 후에 1-2분 정도 시간을 주어 쓰기를 마치게 하라.



성경 본문 나누기 (10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다음의 말을 나누라. “오늘 우리 모임의 주제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9절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싹과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집니다. (온라인 혹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물에 반사체가 있는 사진들을 봅시다.”

참가자들에게 근처나 가본 적이 있는 물의 반사를 볼 수 있는 장소 한 곳을 잠시 생각하게 하라. 공원, 추모 공원, 연못, 뒷마당, 수영장이 그러한 곳일 수 있다. 무엇이 그곳으로 당신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곳은 당신의 영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라. 색도화지에 그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그곳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써보게 하라.

이 프로그램이 반사하는 수영장과 같이 비추어 준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거나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한 성경 구절과 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각자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두 면이 되게 하라. 왼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 두 세 개를 적으라. 오른쪽에는 찬송가, 캠프송, 또는 복음 성가 가운데서 떠오르는 노래를 두 세 개 적으라.



세대 간의 이야기 (10분)

지방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베르나데트 캐나디(Bernadette Cannady)**,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인 **알마 해케트(Alma Hackett)**, 여선교사역자(deaconess)이고 플로리다의 미라마 연합감리교회 운영 지도자인 **주디스 피에르 오커슨(Judith Pierre Okerson)**, 그리고 캔들러 신학대학원 학생인 **그레이드 오커슨(Grace Okerson)**이 신앙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기억하는 성경 구절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번 달의 동영상은 다음의 주소를 방문하라.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묵상과 나눔 (15분)

세 명씩 조를 나누어서 동영상의 이야기와 나와 연결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나의 노래와 내게 중요한 성경 구절들도 나누어 보라.



창의적 활동: 그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10분)

인덱스 카드 한 장에 여러분의 이름, 찬양곡의 제목, (알고 있다면) 작가의 이름, 그리고 나의 영혼에 양식이 되는 가사 구절이나 문장을 적으라. 그리고 나서 그 카드를 바구니에 넣으라.

소그룹 인도자는 바구니에서 카드 하나를 뽑은 후 거기에 적힌 사람에게 찬양을 부르거나 그 찬양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 분 이야기를 나누게 하라. 발표를 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채웠던 것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곡을 적게 하라. 자원자들에게 찬양의 한 소절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거나,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후렴을 함께 불러달라고 청하라.



마무리와 결단하기 (5분)

참가자들에게 웨슬리의 언약 기도를 예배 시간에 “부르심과 응답의 기도”를 하듯 암송하게 하라. 지원자 한 명이 기도문을 큰 소리로 한 구절씩 읽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은 그 구절을 따라서 반복하며 기도하라.

웨슬리의 언약 기도 (수정본)²

저는 스스로 태어났거나, 의지할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진실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지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제가 이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험난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나서거나 물러서거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높임을 받거나 비천해지거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져 부유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거나;
 제가 가진 모든 소유와 저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저로 하여금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메모 및 아이디어

미주

1. 개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unsplash.com과 같이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찾아서 사용하라.
2. 제레미 스미스, “포스트 그리스도인 시대에서 웨슬리 언약 기도,” Jeremy Smith, “Wesley’s Covenant Prayer in a Post-Christian Context,” Hacking Christianity, December 29, 2016, hackingchristianity.net/2016/12/wesleys-covenant-prayer-in-a-post-christian-context.html.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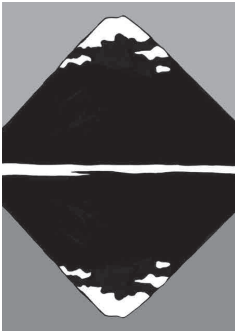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3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여성 역사 의식의 달
2	3	4	5 재의 수요일	6	7 세계 기도의 날	8 국제 여성의 날
9 구호위원회 (UMCOR) 주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세계 물의 날
23 특별 기증의 날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경험과 의식은 무엇인가요?

핵심 주제: 나의 믿음은 어떻게 자랐나?



준비 & 준비물

- 수건을 물에 적신 후 돌돌 말아서 전자레인지나 냄비를 사용하여 따끈한 스팀 타올을 만들라. 따스하게 만들어진 타올을 뚜껑이 있는 보관용 그릇에 담아두어 식지 않게 하라. 수건은 참가자 한 명이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경험과 의식” 순서에 쓰일 점검표를 참석자 수만큼 인쇄물을 준비하라. 점검표는 이 프로그램의 맨 뒤에 있다.
- 여러가지 색깔의 마커, 연필, 또는 펜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신문지나 큰 종이와 이젤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석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각 사람과 인사를 나눈 후, “경험과 의식 점검표”를 한 장씩 가져가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5분)

“물가로 나오라(For those tears I died).” 찬양을 들으면서 모임을 시작하라.

참석한 여성들에게 가사와 곡에 집중하면서 들어보게 하라. 허밍을 하거나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라. 찬양이 나오는 동안, 지원자 한 사람이 다니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스팀 타올을 나누어 주게 하라. 수건을 받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타올로 손과 얼굴을 닦게 하라. 또 다른 지원자 한 명이 사용한 타올을 걷게 하라.

우리의 믿음 여정에 대한 묵상 나눔을 계속 이어가라. 이번 사분기의 주제 성경 구절인 잠언 27장 19절을 다시 읽으라.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지난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힘을 공급해 주는 성경 말씀과 찬양을 생각해 보았다. 이 달 모임에서 우리는 두드러지게 중요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성경 말씀 나누기 (10분)

자원자 한 명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요한복음 13장 3-9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우선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종이에 적게 하라. 참가자들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몇 명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라. 아무도 없다면, 나중에 (페이 월슨과 주디스 피에르 오커슨의) 발을 씻어준 경험에 대한 동영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라. 참석자들은 “경험과 의식 점검표” 가운데 경험한 것들은 표시를 하게 한다. 목록 중에 자신의 경험이 빠져 있으면 적어 넣게 하라. 낯선 것이나 궁금한 것에는 표시를 하게 하라.



세대 간의 이야기들 10분

개체 여선교회의 영적 성장 코디네이터인 **알마 해켓**, 여선교사역자(deaconess)이자 종교와 인종 위원회의 교재 개발 이사인 **갈린다 버튼**, 여선교사역자이자 플로리다의 미라마 연합감리교회 운영 지도자인 **주디스 피에르 오커슨**, 개체 여선교회 회장인 **페이 월슨**, 그리고 연회 여선교회 회장을 역임했고 선교학교의 인도자인 **데비 오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동력을 공급해 준 경험과 의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한다.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번 달의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



목상과 나누기 (5분)

2-3명의 그룹으로 모여서 동영상에서 나누어 준 경험들과 자기 경험과 관계 지어 생각해 보라. 또한 경험과 의식 점검표를 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경험을 그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메모하라. 예를 들면 여름성경학교, 교회 캠프, 선교 여행.



창의적 활동: 여기에 누구 있나요? (15분)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점검표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모아보라.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다. 참가자들이 더 알아보고 싶은 경험의 종류들을 말하게 하여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해 보라. 신문지나 큰 종이에 그러한 경험들의 목록을 적어 보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의사가 있나요?” 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경험 한 가지를 읽은 후에 “여기에 대해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하고 물으라. 예를 들어, 다니엘의 금식처럼 누군가가 금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참석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게 한다.



마무리와 결단하기: 힐링 써클(Healing Circle) (15분)

오늘 모임에서 나눈 풍성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보라. 참석자들을 동글게 앉게 하라. 중앙에 의자 하나를 놓으라. 야고보서 5장 13-16절을 읽으라. 동영상에서 힐링 써클에 대한 비디오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참가자들 중에 치유의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라. (두 사람을 의자로 나오게 하여서 기도를 원하는 사람의 어깨에 다른 사람의 손을 얹게 하라.) 원에 앉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갖게 하라. 기억하라. 요청한 기도 제목을 그룹의 사람들이 알도록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앉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알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도 요청을 한 사람의 비밀보장을 위해 두 사람만 알도록 하라.

힐링 써클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동안 모임 시작 때 들었던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마치라..

메모 및 아이디어

예배 경험과 믿음에 대한 의식 점검표

이름 _____

내가 경험했던 것은 앞의 빈 칸에 ✓로 표시하십시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표시를 하십시오.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보십시오.

- ___ 성찬에 참여함
- ___ 세족식에 참여함
- ___ 세례를 받음 (물 뿌림 혹은 침례)
- ___ 세례 서약 갱신(Baptismal Renewal)
- ___ 힐링 서클, 기름 부음을 받음(anointing with oil)
- ___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함
- ___ 어린이 찬양단에서 노래함 (혹은 어느 합창단이든지)
- ___ 캠프에 감
- ___ 주일학교에서 헌금을 드림
- ___ 주일 학교에 출석함
- ___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혹은 다른 부서에 가입함
- ___ 선교 학교에 참석함
- ___ 철야 기도회 참석함
- ___ 금식 (다니엘의 3일 금식, 12시간 금식 등)
- ___ 기근을 위한 모금으로 록 음악 오래 듣기 혹은 오래 연주하기
- ___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봉사하기
- ___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와 음식 나누어 주기
- ___ 자비량 선교여행 가기(아팔라치 서비스 프로젝트, 해비타트 운동 등)
- ___ 엠마오 영성훈련(Walk to Emmaus), 제자 훈련

메모 및 아이디어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시편 42:1-3



2 사분기: 고인 연못 같은 물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4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종려주일		세금 보고하는 날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20	21	22	23	24	25	26
부활주일		지구의 날				
27	28	29	30			



4월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핵심 주제: 어떻게 믿음이 변해왔나? 나는 반항아인가 아니면 비전의 사람인가?



준비물

-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큰 연못 청소하기” 프로그램을 드라마 낭독같이 큰 소리로 읽을 준비를 하라.
- 고인 연못 사진들 (온라인이나 파워포인트)¹
- 여러가지 색깔의 마커, 연필, 또는 펜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나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페인터스 테이프(painter's tape, 마스킹 테이프)
-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온라인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입장할 때 인사로 맞이하라. 성경 본문 열왕기하 5:1-17(어린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제안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5:11-23(집을 나간 탕자)을 누가 읽을지 미리 정하라. 참석자들에게 마커나 펜 그리고 밑줄 쳐 있는 종이나 색도화지를 가져가게 하라. 배경음악으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틀어 놓으라.



공동체로 부르심 (5 분)

참가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집중해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색종이 위에 쓰거나 그려보라고 말함으로써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라. 또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단어로 적어 보게 하라. 음악이 끝나면, 몇 사람에게 음악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한 것을 나누어보게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험악한 지점에 부딪혔거나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던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변했거나 떠났던 때를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미지는 고인 연못 그림이다. 연못 사진들을 프로젝트로 보여 주거나 그림들을 복사해서 참가자들에게 돌려보게 하라. 그들에게 어떤 연못이 좋아 보이는지, 무엇이 도전이 되는지 집중해서 보라고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혹은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찾지 못한 것 즉 잘못된 것, 지루한 것, 혹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 경험을 살펴 볼 것이다.

도움말: 경험을 나누는 일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호응하고 격려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와 경청하게 하라.

저자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

고인 연못 그림 (로빈 월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원주민의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과 식물에 대한 가르침」). “엄마의 일”이라는 장에서, 그녀는 탁하고 이끼가 가득 찬 연못을 딸들을 위해 수영하는 웅덩이로 만들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헌신했던 일을 적고 있다. 그녀가 처음 그 연못을 보았을 때는 잡초가 없고 물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새끼 거위가 “물 위를 걷는 것”(이끼 매트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키머러는 사람들이 이 연못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이 곳에서 오리와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였다.² 또한 그녀는 연못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를 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키머러는 자신이 속한 포타와토미 부족 여성들은 “물의 수호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몸 안의 연못에 태아를 임신하고, 아기들은 물결과 함께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위하여 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다.”³

잠시 묵상할 시간을 가지라.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떠오르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해 보라.



성경 본문 나누기 (10 분)

자원자 한 명에게 열왕기하 5장 1-12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본문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요단강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거부한다.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종이에 이 본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라.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였나? 내 고향에서 나를 끌고가서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나라면 도울 수 있었을까? 나의 삶에서 고여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나의 공동체에 있어서 고인 부분들은 무엇인가? 둘씩 짝을 이루어 성경 본문을 통해 생겨난 느낌과 경험들을 나누라.



세대 간의 이야기들 (12 분)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비대면 교육 책임자인 **알라나 월즈**의 이야기를 듣고 증오해야 할 이유들에 대하여 적용해 보시오. 북동부 지방 코디네이터인 **데니스 스나이더**와 연회 여선교회 회장이었고 선교학교 인도자인 **데비 오닐**은 식구들에게 배척 당했던 이야기를 말한다. 지방회 여선교회의 통신부장인 **베르나데트 캐나디**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 사이트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를 방문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들을 볼 수 있다.



목상과 나누기: 큰 연못 청소하기 (10 분)

“큰 연못 청소하기”를 큰 소리로 읽으라. 고인 연못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엄마의 일에 대한 경험을 들어 보라.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딸들과 그녀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하여 “팝콘 나누기(팝콘이 정해진 순서 없이 튀겨지듯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이나 의견 나누기에 참여하는 방법)”를 하라.



창의적 활동: 고통 그리고 소망의 박물관 (10 분)

자원자에게 누가복음 15장 11-23절을 읽게 하라. 이 익숙한 이야기는 반항과 고통과 소망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큰 연못 청소하기”와 함께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은 고여 있는 부분과 소망의 기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라. 참가자들에게 성경 본문들과 책 내용 그리고 동영상의 이야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옆 사람과 몇 분 동안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갖게 하라.

이어서 참석자들에게 예술적 능력을 발휘해서 정제된 것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에 대한 포스터나 상징을 만들어 보게 하라. 막대 인간(stick figures)도 괜찮다. 작업이 끝났으면 페인터스 테이프(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벽에 붙이라. 포스터들을 벽에 게시했다면 침묵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박물관”의 그림들을 음미하고 고통과 소망의 표현들을 느끼라.



마무리와 결단 (10 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61장 찬양을 함께 부른다.

(곡조: youtu.be/o8BumYH8n1k)

자원자에게 다음에 나오는 마침 기도를 읽게 하라.

우리는 믿음의 등을 돌린 사람들, 배척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신앙을 시작하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끼는 고인 연못 같은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경험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연못이 고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실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그들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믿음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게 하소서. 아멘.

미주

1. 자기 자신의 사진 혹은 unsplash.com 같이 저작권이 없는 무료 사진들을 사용한다.
2. 로빈 월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원주민의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과 식물에 대한 가르침」 (미니애폴리스: 밀키드 편집, 2013년), 85쪽.
Robin Wall Kimmerer, *Braiding Sweetgrass: Indigenous Wisdom,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Teaching of Plants* (Minneapolis: Milkweed Editions, 2013), 85.
3.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94쪽

큰 연못 청소하기

로빈 월 키머러의 『향모를 땅으며: 원주민의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과 식물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요약함

나는 두 명의 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끼로 범벅이 된 연못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은 하려면 나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방수 장화를 입어야 했고, 때로는 이끼를 제거하는 동안 역겨운 구정물이 장화에 차기도 했다.⁴ 이걸 정말 농담이 아니다.

나는 겨울에 이 집을 샀기에 우리가 본 것은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던 연못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에게 준 문서에는 “깊은 샘이 있는 연못”이 있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봄이 왔을 때, 그 연못은 흉물스러웠다. 우리 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초록색으로 뒤덮여서 어떤 것이 잡초이고 어떤 것이 물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연못에 발 한 짝이라도 담그려 하지 않았다.⁵

어느 날 나는 새끼 거위가 이끼 덩굴에 휘감겨 있는 걸 보았다. 덩굴에서 풀려난 거위는 그 이끼 위를 마치 매트 위를 걷는 것처럼 걸었다. 생태학자인 나는 연못이 덜이 아니라 정말로 야생 동물을 불러들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러 갔다. 나는 삽을 들고 이끼들을 삽으로 퍼내고 또 퍼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이끼가 다시 물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갈퀴가 더 나은 연장이었다... 갈퀴로 이끼들을 연못에서 긁어 내서 멀리 던져서 햇빛에 말라 죽게 하였다.⁶

몇 년 후에, 그리고 갈고리로 많은 양의 이끼를 긁어 낸 후에 외바퀴 손수레에 그것을 실어 나르느라 내 팔뚝이 단단해진 후에,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연못이 되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연못을 위해 일을 하였고, 연못은 나를 위해 일 하였다.” 첫째 딸은 연못이 매우 깨끗해지기 전에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연못에서 잠깐 수영을 할 수 있다.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 또한 즐길 수 있다.⁷

미주

4.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82 쪽..

5.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83 쪽.

6.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85 쪽, 89 쪽.

7. 키머러, 『향모를 땅으며』, 95 쪽.

메모 및 아이디어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국제 근로자의 날 아시안 •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2	3
4 미원주민 사역주일	5	6	7	8	9	10
11 어머니 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메모리얼 데이	27	28	29 승천일	30	31



5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핵심 주제: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느낌인가?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나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라. 배경 음악을 틀어 놓으라. **공동체로 부르심**에 나와 있는 네 개의 신조 가운데 하나를 맡은이에게 큰 소리로 읽어 달라고 부탁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15 분)

디모데후서 1장 5-7절을 읽으면서 모임을 시작하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전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달 모임에서는 우리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내면을 살펴 보려고 한다.

묵상 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원자들에게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 있는 다음의 신조들 가운데서 하나를 큰 소리로 읽게 하라.

- “현대어 믿음의 고백” 884번 혹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한국어 별지 참조)
- “세계 감리교회의 사회 신경” 886번 (한국어 별지 참조)
- “로마서 믿음의 고백 8:35, 37-39” 887번 (한국어 별지 참조)
- “사도신경” 881번

신조를 읽고 나서 각 참석자들에게 아래의 물음에 답을 종이에 써 보게 하라.

- 믿음은 무엇처럼 느껴지나?
- 나의 믿음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
-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세대 간의 이야기들 (3 분)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시에라 엘렌**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고 갈린다 버튼의 손녀이다. **갈린다 버튼**은 여선교사역자(deaconess)이고 종교와 인종 위원회의 자료 개발 책임자이다. **마가렛 버튼**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고 갈린다 버튼의 어머니이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번 달의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성경 말씀 나누기 (10 분)

마가복음 9장 14-25절을 읽으라.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직접 고쳐달라고 한다. 두 세명씩 모여서 자기의 삶(혹은 아는 사람의 삶)에서 자기 자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하라. 그런 경험을 하는 동안 느꼈을 고통, 그리움, 두려움을 보듬어 주라. 그 경험은 자신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목상과 나누기 (15 분)

이 프로그램 끝 쪽에 나와 있는 “테레사 수녀의 탄식-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를 읽으라.

참석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자신의 대답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고 하라. 오늘 성경 말씀과 테레사 수녀의 믿음 없음에 대한 투쟁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인가? 그들이 변할 것은 무엇인가? 참석자들에게 자기 답을 짚궁과 이야기해 보게 하라. 다 마쳤다면,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두 세 명의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라.



마무리와 결단 (10 분)

둥근 모양으로 서거나 앉으라. 그룹 전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 참여자들에게 자기의 믿음 고백 중에 한 가지씩 순서대로 돌아가는 방식(round-robin fashion)으로 나누게 하라. 각 사람의 고백이 끝나면 나머지 회원들은 “내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 라고 응답 기도를 하게 하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를 돌보시려고 여기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응답 기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

모든 지원자들이 자신의 믿음 고백을 한 후에,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다같이, “내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 라고 고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마치라.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 테레사-수녀의 탄식¹

테레사 수녀는 한 때 이렇게 기도했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조차 아무 것도 없고 공허와 어둠 뿐입니다 . . . 하나님이 계시다면 -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믿음의 내적 전쟁을 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테레사의 50년에 걸친 이 고투는 그녀의 저널 일부를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Mother Teresa, Come Be My Light)」는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에 밝혀졌다. 아담 홀츠는 묻는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믿는 사람이라면 의심과 좌절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예수께 아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특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믿지 않았었던가? 우리도 테레사 수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사역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길 기도하자.

미주

1. 아담 홀츠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에 바탕을 둠. Based on Adam Holz, “Help My Unbelief!” Our Daily Bread, February 28, 2024, odb.org/2024/02/28/help-my-unbelief.

한국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 (1930년)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자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6. 우리는 살아 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세계 감리교 사회신경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886번)

우리는 세상과 모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고; 또한 인도하고, 강건하게 하며,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징표들 안에서 기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
사랑과 정의와 화해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행위;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갖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고 모든 지구의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 안에서 기뻐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는 개인적인 죄와 공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침묵하거나 행동으로 지은 죄:
인종, 계급, 나이, 성별, 국가, 혹은 신념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죄;
탐욕과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여 지은 죄;
개인적으로, 집단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죄;
보안을 이유로 군대와 경제적 힘으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한 죄;
기술을 함부로 사용해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린 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추구하고;
정의와 자유로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믿음의 고백 (8:35, 37-39)

인도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회중: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멘.

메모 및 아이디어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6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세계 환경의 날	6	7
8 성령강림주일	9	10	11	12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13	14
15 평화와 정의의 주일 아버지의 날	16	17	18	19 미혹인 노예 해방 기념일 (Juneteenth)	20 세계 난민의 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월

결단하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핵심 주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준비물

- 여러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있는 바구니
- 인덱스 카드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도착하는 회원들을 인사로 맞이하라. 회원들에게 모임을 시작하기 전까지 브라이언 맥파랜드(Brian McFarland)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Until All Are Fed, youtu.be/XLwmYlzk78)” 노래를 개인 전화나 태블릿으로 들으면서 기다리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5 분)

회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노래에서 들은 것을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섬기기”로 매일 다시 다짐하자고 말함으로써 돌봄과 응원을 하라.



성경 말씀 나누기 (10 분)

누가복음 19장 1-9절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라. 우리의 삶을 예수께 드린 때부터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라. 지원자들에게 다음 질문 중 하나에 답하게 하라.

-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나요?
- 지금은 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위의 두 질문에 대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대답들을 나누도록 격려하라. (예: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한 해 여름 동안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학용품들을 사는 일을 도우려고 동전을 모았다. 어른이 되어서는 정의를 위한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연락하는 일에 헌신했다.) 3월 모임에서 예배 경험과 의식 목록에 자신들이 표시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게 하라.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나?



세대 간의 이야기들 (20 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역 선교사인 **핀다 쿨와**(Finda Qulwa) 그리고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사 소아레스**(Andrea Reily Rocha Soares)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라. 여선교사역자 (deaconess)이며 종교와 인종 위원회의 자료 개발 책임자인 **갈린다 버턴**(Garlinda Burton)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이사인 **대릴 준스 조**(Daryl Junes Joe)는 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에서 경제와 환경 정의 책임자인 **일카 베가**(Ilka Vega)는 어린 아이로서 손을 얹고 기도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아틀란타 중앙장로교회의 어린이와 가정 사역자인 **박찬미 목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달의 동영상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시청할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묵상과 나누기 (10 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가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라. 참여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가장 처음 기억을 간단히 적어보게 하라. 세 명씩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라.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각 그룹의 대표가 그룹 전체에서 나누었던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씩 발표하게 하라.



마무리와 결단: 그대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10 분)

각 회원에게 인덱스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주라.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게 하라. 가능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라. 자기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된다. 카드를 반으로 접어서 바구니에 넣게 하라.

자신의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를 바구니에 넣은 후에, 바구니를 오른쪽으로 전달하면서 한 사람씩 기도 카드를 한 장을 뽑게 하라. 혹 자신의 카드를 뽑지 않았는지 카드를 살짝 확인 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뽑았다면, 카드를 위로 높이 들어 올린 후 다음과 같이 기도 드리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여섯 달 동안 나의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을 도와 주소서!

7월 모임을 위한 준비

다음달 모임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들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실천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영혼을 돌보는 기회를 가질 것인지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판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란다. 이 연습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심과 회복과 삶의 균형을 이룰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초대이며 확인을 시켜 주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Until All Are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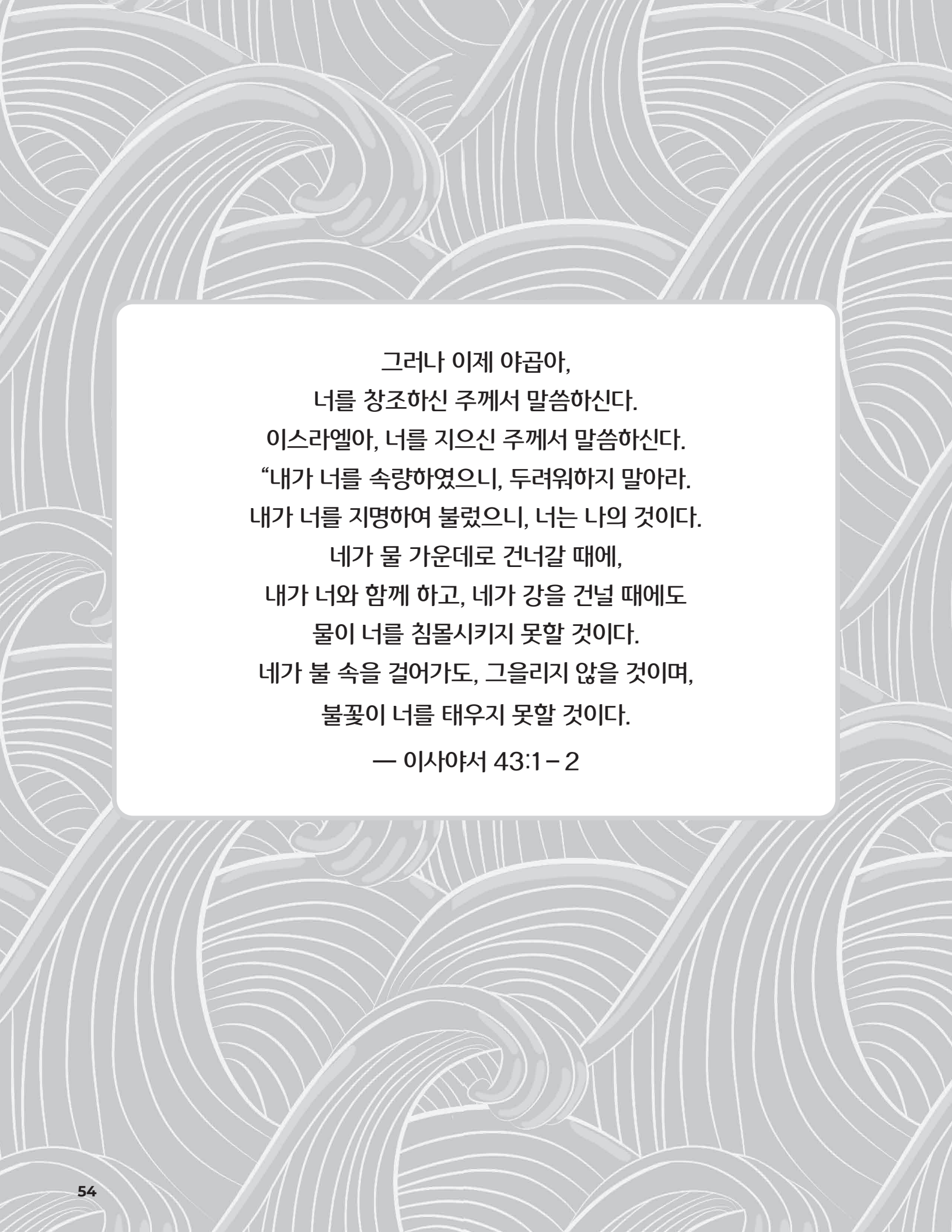
—브라이언 맥파랜드(Brian McFarland)

(1절 가사)

언제까지 우리는 노래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편지를 쓰고 보낼까?
언제까지 우리는 가지고 올까?
언제까지 우리는 머무를까?
언제까지 우리는 고쳐야 할까?

(후렴)

우리는 외친다,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이 땅의 모두가 빵을 먹을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그 분처럼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섬긴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 이사야서 43:1-2

**3 사분기:
폭풍같은 물**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7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미 독립 기념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

예수님은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나요?

**핵심 주제: 예수께서 힘의 불균형을 중단시키고 대안적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보나요?**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 또는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성경 본문 별지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한 성경
-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성경 분문을 참석자들에게 미리 보내주라.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모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라.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가져갈 시간을 주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나중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시간과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5 분)

참석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다음의 지시문에 대답해 보게 하라.

오늘 나는 자신을 어떻게 돌보았나? 이번 주에는? 오늘과 이번 주에 나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위해 나를 돌보았던 것 한 두 가지를 말해 보게 하라.



성경 본문 나누기 (2 분)

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10-31을 그룹을 위해 큰 소리로 읽도록 부탁하라.



목상과 나누기: 그리스도를 통한 이분법 해체하기 (8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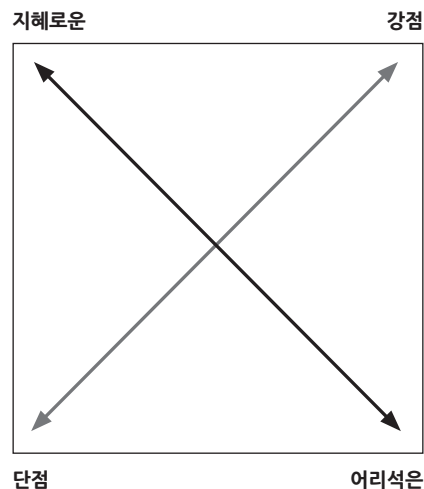
분열과 위계(hierarchy)는 현대 교회의 새로운 발명품들이 아니다. 브리짓 칼(Britte Kahl)은 「다시 생각해 보는 갈라디아서: 정복당한 사람의 시선으로 읽기」라는 그녀의 책에서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 신학의 진화를 본다.¹ 바울에게 깊게 자리잡고 있던 세계관은 대립을 이루는 이분법적 개념(binary opposites)이었다. 우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에 친숙하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등등. 실제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대립적 개념은 위계를 불러 일으킨다. 한 쪽은 우수하고 나머지 한 쪽은 열등하다고 여긴다.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참석자들에게 이분법적 표현에 강조표시를 하거나 찾아 보게 하라. (예를 들어, 지혜로운/어리석은, 유대인/그리스인, 약함/강함)

브리짓트는 그녀의 책에서 이분법이 어떻게 조직화되었는지를 상징으로 나타내는 전투 사각형(battle square)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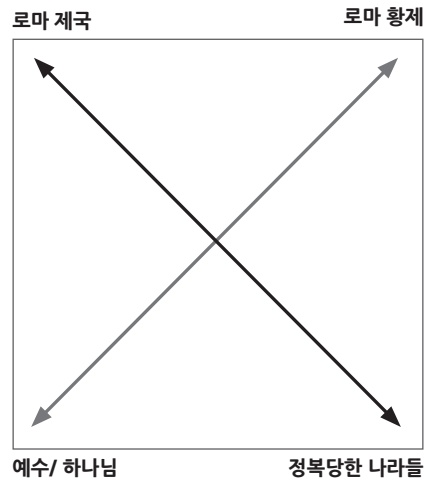
전투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화이트보드나 대형 전지를 사용하라. 온라인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milanote.com, mural.com, 혹은 화이트 보드에 canva.com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지털로 전투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라.

사각형을 사용해서 시작하는데, 짝을 이루는 두 개의 요소들을 알아낸 후 사각형의 꼭지점에 대립을 이루도록 배치시키라. 이 때, 힘이 있는 것은 위에 적고 힘이 없는 것은 아래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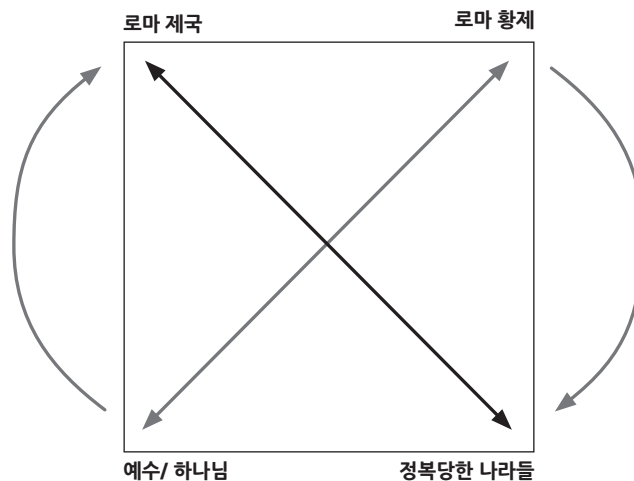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불공평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복당한 나라들의 힘 없는 사람들과 정반대를 이루는 정복자로서 로마 제국의 힘을 매일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는) 전능자인 반면에 다른 신들은 그 보다 열등한 신으로 여겨지는 이해로도 확장됨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전투 사각형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게다가 예수의 열등함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잘 드러나게 되었다. 이 십자가는 공개적 모욕과 수치감을 주는 황제의 방법이자 어느 누구라도 팩스 로마나(Pax Romana)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표본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이 지점으로부터 브리지트는 바울이 경험한 부활에 대한 변화를 파고든다. 부활을 통해 예수는 자기의 능력이 사실상 제국의 손에서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대신 그의 “능력”은 꼭대기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움직임은 이분법을 한 번에 깨뜨리신다. 전투 사각형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브리지트는 권력의 위치로부터 권력이 전혀 없는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다른 쪽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분법을 “뒤집어서” 새로운 계층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움직임은 새롭지만 이분법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창조해 냄으로써 힘이 없는 사람들과의 연대(solidarity)를 발견한다.



창의적 활동: 전투 사각형 (15 분)

모임 장소에 전투 사각형을 만들라. 전투 사각형 공간의 어떤 부분을 힘 있는 사람들 쪽을 하고 어떤 부분을 힘 없는 쪽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종이, 펜, 마커, 그 외 다른 필기도구들을 사용하여 참가자들 가운데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게 하라.

모인 사람들 가운데 분열과 불평등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대립되는 두 양극의 짝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라. 사각형의 네 모서리에 있는 표지판에 서 있을 네 명의 자원자들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이 십자가의 힘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를 옮겼듯이, 힘 없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각형의 정해진 자리를 빠져나와서, 위 그림의 반원을 따라 힘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위로 올라가게 하라.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이 위쪽의 새로운 위치에 도착했다면, 기존의 힘 있는 사람들 자리의 사람들은 반대로 힘 없는 사람들 위치로 움직여야만 한다. 이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무한대 표지판의 경로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움직임과 연합하기 위하여 힘이 있는 위치들은 해체된다.

묵상: 참가자들과 움직이는 창의적 활동을 어떻게 느꼈는지 나누어 보라. 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무엇과 같았는가?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무엇과 같았는가?



그룹 토의

브리짓트(Brigitte Kahl)의 연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공동체(Kin-dom)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힘의 역동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카이로스(kairos, 하나님의 시간)의 순간이 되는가를 본다. 퀴어 이론은 이러한 비이분법적(non-binary) 사고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퀴어 이론이란 새로운 길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학문간 연구 분야이다. 이 이론은 성(gender)과 성 정체성(sexual identities)에 대한 전통적인 가설을 해체하고,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을 문제 삼으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싸우는 사고 방법이다. 많은 학자들에게 퀴어 이론은 자기들의 학문 영역 속에서 “기묘한(queer)” 생각들과 작업을 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묘함”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퀴어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새롭고,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상상하게 한다.²

-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에 나타나는 이분법적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사회적 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해석을 “기묘하게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연대감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나?
- 이분법적 생각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가?
- 그리스도를 통해 이분법적 생각이 무너졌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세대 간의 이야기들 (23 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인종정의 부서 책임자인 **에밀리 존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녀는 혼란스러운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애슐리 비취-워드**는 믿음과 재정 워크숍 인도자이고 국제 찬양 교회의 교인으로서 밀레니얼 세대를 꿈을 꾸는 자(visionaries)로 이야기를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경제와 환경 정의 부서 책임자인 **일카 베가**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이사인 대릴 존스 조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을 나누어 준다. 이번 달 동영상은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사이트를 방문하라.



전체 그룹으로 이야기 나누기

- 오늘 기대하지 못했거나 놀라운 것들을 들은 것이 있었는가?
- 혼란스러운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가? 영망진창인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가?
-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분법과 불공평한 힘의 구조의 붕괴를 실천하는가?



마무리와 결단 (2 분)

참석자들에게 자기의 삶에서 이분법을 깨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 생각하고 나누게 하라. 이 시간은 자신의 가정들(assumptions)을 성찰하고 다시 생각하는 실천을 할 수 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힘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신과 다르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연결고리를 찾게 하거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갖게 한다.

미주

1. 전투 사각형을 설명하는 자료는 브리짓 칼의 「다시 생각해 보는 갈라디아서: 정복당한 사람의 시선으로 읽기」, Brigitte Kahl, *Galatians Re-Imagined: Reading With the Eyes of The Vanquish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칸들의 여는 말에서 인용함.
2. “퀴어 이론의 개요,” 인디애나 대학 도서관, 2024년 6월 10일 검색. guides.libraries.indiana.edu/c.php?g=995240&p=8361766.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8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국제 원주민의 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실천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 주제: 어떤 실천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자라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나요?**



준비물

- 물이 담겨 있는 주전자, 컵, 그리고 큰 그릇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 또는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읽기를 위한 인쇄물 혹은 온라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석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모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라.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가져갈 시간을 주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나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시간과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라.

참석자들이 각자 자리에 앉을 때에 놓인 컵에 물을 따르게 하라.

찬양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12장 “내 곁에 계시옵소서 (Stand by Me)”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라.
(youtu.be/kT3uMcKF9Rk)



공동체로 부르심 (3 분)

참석자들에게 다음 지시문에 대하여 대답해 보게 하라. 대답을 마친 후에는 자기 컵의 물을 공동체 그릇(큰 그릇)에 붓게 하라. 오늘 순서를 마칠 때까지 이 그릇을 중심 상징물로 쓰라.

- 나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삶의 폭풍이 휘몰아 칠 때에,”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모두가 대답을 나눈 후에 공동체 그릇에 담긴 물을 다음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난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정감과
평안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나누기 (2 분)

참가자 중 한 사람에게 출애굽기 40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하라. 성경 읽기를 할 때 매달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



묵상과 토론 (5 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작업은 매우 섬세한 일이다. 구체적인 물건과 정해진 자리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행위와 성막에서 일 할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막에 관한 설명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의도성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모습에 대한 이해를 써 보라.

전체그룹으로 다음의 질문에 토론을 해 보라.

-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섬세함에 대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띄었는가?
- 지시 사항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가?
- 나의 삶 속에서 성스러운 장소들과 경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는가?



세대 간의 이야기들 (11 분)

아틀랜타 한인중앙장로교회의 **박찬미 목사**와 교회 식구들, 기독교 교육자이고 가수-태평양 연회 여선교회의 임원으로 섬겼던 **한영은 전도사**, 여선교회 지역 회장인 **페이 월슨**, 그리고 **대릴 존스 조**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라.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to locate the video for this month.



토의와 나눔 (8 분)

성장하면서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실천이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무엇이 그것을 의미 있게 했는가? 한국적인 것과 같은 문화적 연관성이 있었는가? 어떤 관계가 발달되었는가?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는가?



창의적 활동: 의식 만들기 (25 분)

창의적 활동을 위한 추천 도서는 다음과 같다. Braiding Sweetgrass: Indigenous Wisdom,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Teachings of Plants by Robin Wall Kimmerer의 원서 33-34쪽과 37-38쪽.

로빈 월 키머러의 「향모를 땀으며: 토박이 지혜와 과학 그리고 식물이 가르쳐준 것들」의 “헌금하기”에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디언 부족이 살았던 곳의 호수가에서 아침이면,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 처음 내린 커피를 헌금으로 땅에 부어드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땅에 대한 존경의 행위로서 그녀에게 투영되었다고 말한다. 땅에게 고맙다고 말하던 아버지의 이 의식은 그녀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다.

몇 년 후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의식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예식이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오래 동안 생각했다.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 이 말씀이 전부였다.

몇 주가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커피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땅에다 붓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어. 네가 알다시피, 그건 그냥 끓인 커피야. 커피 필터도 없었고, 커피를 너무 끓이면 거품이 생겨서 주전자 주둥이가 막히곤 했지. 그래서 첫 잔을 땅에 부으면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거야. 처음 시작은 주전자 주둥이가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였어.” 그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는 듯이 나에게 말했다. 모든 감사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단지 땅에 커피 덩어리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근데, 너 그거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게, 언제나 막힌 주전자 주둥이를 뚫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중요한 일로 바뀌었다. 생각이지. 일종의 존경심, 일종의 고마움 같은 거였어. 어느 아름다운 여름 아침에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었단다.”

바로 그것이 의식이 가지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식은 평범한 일상을 경건한 것이 되게 하는 즐거운 일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커피가 변하여 기도가 된다. 마치 커피 머그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침 안개로 변하고 땅이 부식토와 하나가 되듯이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섞인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땅에 당신은 무엇을 더 바칠 수 있을까? 나 자신 외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가정에서 만들어진 의식, 가정을 만드는 의식.¹



그룹 묵상

네 다섯 명씩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라.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그룹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내가 여선교회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무엇이 나에게 소속감을 주는가?

내가 어떤 의미로 계속 돌아오게 하는 의식이나 실천할 것을 10분 동안 만들어 보라. 어떻게 그 느낌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까?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전체 그룹으로 할 것인가? 두 사람이 모여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전체 그룹으로 이야기 나누기

마지막 몇 분은 각 그룹이 만든 의식을 전체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시간을 가지라. 이 의식들을 여선교회 모임에서 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라.



마무리와 결단 (2 분)

다음의 기도를 다함께 드리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진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경건한 것이 되는 기쁨, 창조와 연결이 되게 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기억할 수 있는 실천과 의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공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땅에 되돌려 드립니다. 아멘.

모임을 마칠 때에, 한 사람에게 요청하여 물이 담긴 공동체 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물을 땅에 부음
 으로서 물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미주

1. 로빈 월 키머러, 노승영 역, 「향모를 땅으며: 토박이 지혜와 과학 그리고 식물이 가르쳐준 것들」 (서울: 에이도스), 2020; Robin Wall Kimmerer, Sweetgrass: Indigenous Wisdom,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Teachings of Plants. (Minneapolis: Milkweed Editions, 2013), 37-38.

메모 및 아이디어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9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노동절 창조절 (9월 1일-10월 4일)	2	3	4	5	6
7 푸른 하늘의 날	8	9	10	11	12	13
14	15 히스패닉/라틴 문화유산의 달 (9월 15-10월 15일)	16	17	18	19	20
21 세계 평화의 날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월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핵심 주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또는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도화지
- 흰 종이 혹은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읽기 자료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성경
-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모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라.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가져갈 시간을 주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나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시간과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4 분)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 연주를 듣게 하라. 만일, 연주곡 듣기가 여의치 않으면, 인도자가 가사를 낭독하여 참가자들이 가사를 음미하게 할 수도 있다.

찬송가 연주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초대를 받는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나, 그 외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받게 될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또는 과거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찬양 연주가 끝나면, 옆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라.



성경 말씀 나누기 (2 분)

참가자 중 한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1-8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성경 읽기를 할 때 매달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



묵상 (8 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오랜 세월 동안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교인 수와 예배 참석 인원의 감소에 맞서고 있다. 세계적 팬데믹 후에,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정상적” 이라고 여겨 졌던 많은 규범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덜 “정상적” 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가상 교회(virtual church)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면으로 만나는 시간 낭비이며 이 방법은 더욱 소외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들은 새롭게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오고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와 전통들은 매우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 오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독특성을 통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개방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요구 때문에 불공평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포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

다음의 인용문을 참가자들에게 읽어주라.

마르코스 정권 동안 9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에디시오 데 라 토레 (Edicio de la Torre) 신부는 농부들과 소작인들과의 경험을 이야기로 들려 주기를 좋아한다. 하루는, 그가 말하기를, 마을의 가게에서 소작인들과 마주쳤다. 그들에게 데 라 토레 신부가 말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말해 주세요.” 소작농 리더가 말하기를, “신부님, 당신들은 맨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소이다. 당신네들은 내 삶의 변두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주말과 나의 밤 생활에 대해서만 말이요. 매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나는 밭을 갈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내가 스물 다섯 가마보다 오십 가마를 추수하면, 그게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요?” 데 라 토레 신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더 적절한 기독교 신학을 탐색하게 했다.¹

개인 묵상

나라면 그 소작농 리더에게 무슨 답을 했을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하나? 몇 분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 보게 하라.



세대 간의 이야기들 (14 분)

아틀랜타 한인중앙장로교회의 어린이 사역자인 **박찬미 목사**가 이민 세대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 보라. 기독교 교육가로서 가주-태평양 연회 여성교회의 임원으로 섬겼던 **한영은 전도사**는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연합감리교회 전국 사무실의 직원인 **매리앤 버기즈와 알라나 월스**는 전통적인 교회 현장 밖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번 달의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묵상과 나눔 (20 분)

참가자들을 네 다섯 명의 소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에게 대형 전지 몇 장과 종이 받침대나 화이트보드를 나누어 주라. 각 그룹에서 내용을 기록할 사람을 한 명씩 뽑게 하라.

각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게 하라: 신실한 믿음이란 나에게 어떤 뜻인가? 공통적인 말과 색다른 말이 있는지 관찰하라. 각 그룹별로 신실한 믿음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문장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5Why 기법**을 사용하여, “그건 왜 그렇지?” 라고 5번 물어봄으로써 각 단계마다 이 진술(statement)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하라. 이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asyretro.io/templates/5-whys를 찾아보라.

질문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쳤으면,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전체 그룹으로 묵상하라.

-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 신실한 믿음의 의미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그룹에서 정리한 내용과 결론들을 벽에 붙이거나 테이블에 위에 전시하게 하라. 마커와 펜을 각 그룹에 나누어 주라. 참가자들에게 다른 그룹의 내용들을 읽은 후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내용에 마커로 점을 찍어보게 하라.

온라인 그룹 도움말: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대답을 대화창에 적어서 나누거나 혹은 miro.com/templates/dot-voting을 통해 대답을 정리해서 나누어 보라.



전체 그룹 토론

- 어디에서 마음의 울림을 보았는가? 다양하게 나뉘어진 곳은 어디인가?
-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거나 느끼는가?



마무리와 결단 (6 분)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새로 얻은 통찰력을 하나씩 나누게 하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40장(새찬송가 393장) “오 신실 하신 주”를 부르면서 모임을 마치라.

미주

1. 레베카 아세이오, 『폭풍 안에 있는 쌀: 필리핀에서 고심하는 믿음』 Rebecca Asedillo, *Rice in the Storm: Faith in Struggle in the Philippines* (White Plains, NY: Friendship Press, 1989), 134쪽.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 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
이라고 부를 것이다.

— 이사야서 58:10 – 12



4 사분기: 환대의 물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10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가정폭력 인식의 달 유방암 인식의 달	2	3	4
5 세계 성만찬 주일	6	7	8	9	10	11 국제 여아의 날
12	13	14	15	16 세계 음식의 날	17	18
19 연합감리교회 어린이 안식주일	20	21	22	23	24 국제 기후 행동의 날	25
26	27	28	29	30	31 할로윈	



10월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핵심 주제: 여러분은 자매됨의 은혜를 어떻게 만들고 돕나요?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 접시들
- 화면에 띄우거나 인쇄물로 준비되어 돌아가며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사진들: 바닷가를 걷고 있는 여인들, 해변에서 쉬고 있는 여인들 또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호수의 물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사진이나 그림들¹
- 테이블 한 쪽에 준비된 물병들과 컵들
- 읽기 자료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성경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이기 시작할 때에 “물가로 나오라(For Those Tears I Died)”와 같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라. 바닷가를 걷고 있는 여인들, 해변에서 쉬고 있는 여인들, 또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호수의 물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거나 인쇄해서 돌려보게 하라. 각 참석자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게 한 후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라.



성경 말씀 나누기 (3 분)

모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라.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사야 58장 10-12절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과 마가복음 9장 41절 (내 이름으로 물을 한 잔이라도 준다면)을 소리 내어 읽게 함으로써 이 모임을 시작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10 분)

이 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잠시 고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가? 떠오르는 경험들을 메모해 보게 하라.

다른 참석자 한 명에게 이 교재 마지막 쪽에 있는 풍성한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낭독하게 하라. 이 글은 풍성한 정원을 가진 저자가 신선한 야채를 키울 땅이 없는 대부분의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과 더불어 어떻게 야채들을 교인들과 나누었는가에 관한 기억을 들려준다.



세대 간의 이야기들 (15 분)

다음에 나오는 여성들이 은혜로운/영웅적인 자매됨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사무실의 영적 성장과 형성 전문가인 **노라 아세디오-커닝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고 테네시 주립대학교 학생인 **시에라 앨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개체 여선교회 영성부장인 **알마 핵켓**, 동북부 지역회 코오디네이터인 **데니스 스나이더**, 캔들러 신학생인 **그레이스 오커슨**, 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여선교사역자(deaconess)이자 플로리다주의 미라마 연합감리교회 사무장인 **주디스 피에르-오커슨**, 믿음과 재정 워크숍 인도자인 **애슐리 비치-뤼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은혜의 공동체 만들기 (10 분)

이 여성 공동체는 많은 돌봄과 나눔에 있어서 포용적이라는 점을 참석자에게 주목해 보게 하라. 은혜의 자매 공동체의 한 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 혹은 다비다의 이야기이다. 자원자 한 명에게 사도행전 9장 36-42절을 읽게 하라.

은혜의 공동체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 좋은 예는 걸트렉(GirlTrek)으로 건강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전 세계적인 자매됨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첫째, 지도자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일 30분씩 다른 사람들과 걷기에 가입하라고 한다. 둘째, 이 조직 운영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면서 다른 여성들과 연결되게 하는 일에 공동체가 후원하도록 권장한다. 3월에 여성들은 “해리엇 홈파티(Harriet House Party, 해리엇 터브만이 이 조직의 여성 영웅이라서 이름 지어짐)”를 열도록 요청한다. 이 모임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자신과 지역 사회를 위해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 은혜의 자매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girltrek.org에서 알 수 있다.



묵상과 나눔 (10 분)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은 다음의 물음 중 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 내용을 적어보게 하라.

- 당신의 개인적인 은혜의 자매됨은 어떤 것인가?
- 당신의 교회에서 은혜의 자매됨은 어떤 모습인가?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은혜의 자매됨은 어떤 모습인가?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은혜의 자매됨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창의적 활동: 도르가 모임 (10 분)

개인적으로 자신의 “해리엇 홈파티” 혹은 도르가 모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여러분은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도전,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의 상징으로서 종이 접시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초대장 혹은 파티에 대한 소망들을 적어보게 하라.

옆 사람과 나누기: 여러분의 초대장이나 파티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 보라.



마무리와 결단 (2 분)

나눔을 마치게 하라. 나눔을 한 짝공과 함께 시원한 물병과 컵이 놓여 있는 테이블로 가게 하라. 한 사람이 자기 짝공의 잔에 물을 채워 준 후 그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하라. 나머지 한 사람도 자기 짝공에게 똑같이 잔에 물은 채워 준 후 축복기도를 하게 하라. 함께 물을 마시면서 은혜로운 자매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라.

마침 기도: 로이스와 유니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은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물 댄 동산과 같이 그리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서로 간에도 친밀하게 하소서. 우리의 은혜로운 자매됨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

1. 각자 자신의 사진이나 unsplash.com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사용하라.

풍성한 정원

페이 월슨

나는 메릴랜드주의 농장에서 자랐다. 나의 부모님은 오이, 토마토, 고추, 옥수수, 그리고 콩과 같은 트럭 작물을 키웠다. 자녀인 우리들도 여름이면 밭에 나가서 많은 농작물을 손으로 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일은 매우 힘들었다. 뾰족한 줄기를 가진 오이를 따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었고 등도 많이 아팠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커다란 정원에 야채들도 많이 키우셨다. 리마콩, 버터콩, 단 옥수수, 토마토, 풋강낭콩, 수박, 캔달로프, 아스파라거스, 흰 감자, 고구마. 내가 볼 때, 이 목록은 끝도 없었다. 종종 아침 내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점심을 먹고 조금이라도 뜨거운 햇빛을 좀 피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과일과 야채들을 따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무척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판매대를 세우고 길 옆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에게 남은 야채들을 파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커다란 종이 봉투에 정원에서 따온 것들을 다양하게 종류별로 담았다. 나는 아버지가 일정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채소들을 담았던 것을 기억한다. 풋강낭콩은 맨 바닥, 토마토는 맨 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갈 때에, 아버지는 교회의 노인 할머니들 몇 분에게 우리 자동차 뒤로 오시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한 봉지씩 나누어 주셨다. 이 분들은 채소를 가꿀 정원이 없거나 가꿀 수 없는 분들이셨다. 언제나 나에게 그 정원에 대한 기억은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물 दें 동산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사야 58장 6-12절을 생각나게 한다.

메모 및 아이디어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11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모든 성인의 날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유산의 달
2	3	4 선거의 날	5	6	7	8
9	10	11 재향 군인의 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6일 간의 성폭력 방지와 인권 실천주의 기간 (11. 25-12. 10)	26	27 추수감사절	28	29
30 연합 감리교회 학생 주일 강림절 시작						



11월

범사 감사 헌금: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

핵심 주제: 헌금은 어떻게 소망을 키워주나요?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 혹은 줄이 쳐 있는 노트
- 읽기 자료의 인쇄물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성경
- 센터링 물건으로서 쌀이 담겨 있는 밥 공기, 물이 담긴 컵 하나, 그리고 초로 장식하기
- 참가자 숫자만큼의 열쇠 고리들
- 적어도 세 가지 색깔의 구슬들-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로고에 사용된 색이면 더 좋다.
- 12 인치 줄-구슬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두께의 카드 또는 줄
- 출력된 범사 감사 헌금 접시 그림을 인원수 대로 준비 하라. 헌금 접시 그림은 uwfaithresources.org/prodDetail.cfm?productID=10901&catid=2186에서 구할 수 있음
-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가위
- 헌금통을 꾸밀 수 있는 미술 재료들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모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라.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가져갈 시간을 주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나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라. 참가자들이 시간과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신성함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이다 (5 분)

쌀이 담겨 있는 밥 공기, 물이 든 컵, 부채, 그리고 불이 켜진 초를 테이블 가운데를 꾸미라. 참석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으면, 창조 때에 있던 물, 땅, 공기 그리고 불의 요소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라.

참석자들이 둥글게 모이면, 그룹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각자의 믿음에 기초가 되는 것, 다양한 삶의 단계로 넘어가고 적응하는 경험,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는 힘, 그리고 마음에 소망의 불을 켜주는 것에 대하여 나누어 보게 하라.



성경 말씀 나누기 (2 분)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마가복음 12장 41-44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성경 읽기를 할 때 매달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



묵상과 나눔 (5 분)

이번 달에 우리는 소망의 영으로 감사를 실천한다. 결핍의 영으로 살아가기는 우리 공동체를 의지할 수 없게 한다. 이 일은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짐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풍족함의 영으로 헌금을 실천하는 일은 믿음의 실천이자 소망을 향한 선택이다. 이 프로그램의 저자인 노라 커닝햄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나는 나를 앞서 간 여성의 유산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나를 이끌어 주며, 성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이 과정 속에서 소망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나의 어머니 레베카 아세디오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왈라 나(wala na, 더 이상 없다/ 끝이다). 소망은 움직임에 연료와 같아. 왜냐하면 소망은 목표가 있어. 그리고 소망은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야... 악과 압제와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너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 너는 투쟁해야 하고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야-그게 네가 사람인 이유야. 그것이 바로 인간 정신이지.¹

올 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 공동체를 형성해 준 사람들과 경험들을 묵상해 왔고, 진리와 지금 세대들의 가치와 앞으로 올 세대들이 마주할 변화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으면서 왔다. 우리는 우리들을 기쁨과 자매됨으로 인도하는 여성들의 유산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실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담대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지고 다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헌금은 우리 조직의 선교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선교 사역의 유산을 이루는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풍성하다. 정의와 풍성한 삶을 추구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현재이며 미래진행형이다. 우리의 전통, 성경, 경험, 그리고 이성 안에 존재하는 풍성한 소망이 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계속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은 바로 소망이다.



세대 간의 이야기 (12 분)

캔들러 신학교 학생인 **그레이스 오커슨**은 선교학교(Mission U), 노아 프로젝트(NOAH project)에 대하여 말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질문을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 사무실의 인종 정의 부장인 **에밀리 존스**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 내는 것과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꿈을 쫓는 이야기는 나눈다. 2023-2024년의 텍사스 여성교회의 회장인 **미네르바 브리온즈**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이사인 **애비 구티에레스**는 여성 영웅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창의적 활동: 소망의 구슬 팔찌 (10 분)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자매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슬로 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것이다. 각각의 참석자는 적어도 세가지 색깔의 구슬들, 미리 오려진 줄과 열쇠고리가 필요하다. 줄을 열쇠고리에 묶은 후에 구슬을 원하는 대로 끼우라. (만드는 방법은 youtu.be/D9vwfOf3Cak 동영상을 참고하라.)

각각의 구슬을 끼우면서, 다음에 제시된 지시문을 사용하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라는 명칭의 한 단어씩 묵상해 보라.

구슬 1: 연합된-연합이 나에게서 왜 중요한가? 연합이란 말은 어떻게 나의 믿음과 소망에 연료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섬겼던 경험 가운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연합이 주는 힘은 무엇인가?

구슬 2: 여성들-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격려해 주었는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여성으로서 나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재능과 경험은 무엇인가? 자매됨은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구슬 3: 믿음-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은 나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나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프로그램이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부르시는가?



토의

그룹으로 위의 묵상 가운데 한 가지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사역과 자매됨이 나에게 어떻게 나의 소망에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나누라.

헌금: 범사 감사 헌금통 만들기 (10 분)

범사 감사 헌금통 도안을 나누어 준다. (한국어로 된 헌금통 도안은 <https://uwfaithresources.org/prodDetail.cfm?productID=10667> 을 참고하라.) 소그룹별로 하나씩 헌금통을 오린 후 미술 재료들을 이용하여 겉면에 장식한 후에 조립하라.

헌금통을 만들면서,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다음의 물음들을 이야기해 보라.

- 내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사역을 위해 드렸던 헌금 방식은 무엇이었나?
- 내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사역으로부터 받았던 방식은 무엇이었나?

헌금통이 만들어지면 연합감리교회 통신부에서 만든 기도 동영상 보면서, 각자 만든 헌금통에 자신의 첫 헌금을 드리라. umc.org/en/content/let-us-give-thanks-a-photo-prayer.

각자의 헌금통과 자매들과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WorldThankOffering2025** and **#UWomenFaith!**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라.

**범사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온 참가자들은 헌금을 주의 제단에 드린다.
수표로 드려진 헌금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오.**

United Women in Faith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777 United Nations Plaza, 11th Floor
New York, NY 10017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다: bit.ly/3Di253b



마침과 결단 (2 분)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공동체에 유산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더하여 마태복음 1장을 창의적으로 읽을 것이다. 우리는 두 번을 돌아가면서 기도할 것이다. 첫번째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추가할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읽을 것이다. 다같이 말씀을 읽어 보시다.

인도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참석자들은 다음의 빈 칸을 채우라.

_____의 엄마/이모/고모/자매*인 _____
이 름 이 름

예: 그리고 라헬의 어머니 에스더.

(오른쪽 사람의 이름)의 자매된 <자신의 이름> .

*자신의 친 엄마나 고모나 이모나 자매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다만, 이 이름들은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인도자: 그러므로 그 모든 대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 갈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빌론으로 잡혀 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입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156년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사랑을 구하라는 복음의 부르심을 실행하면서 믿음을 실천으로 바꾸어 가는 유산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범사 감사 헌금이란 무엇인가?

범사 감사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의적인 방법들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어떤 여성들은 매일의 축복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헌금통에 동전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동전과 지폐를 헌금통에 드리기도 한다.

범사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본부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선교 사역의 모든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미주

1. 커닝햄, 엘. 에이, "탈 식민화를 향한 소망: 필리핀의 자유를 위한 교육학적 전략," 2023년 드류 신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82: Cunningham, L.A., "Decolonial Hope as Praxis: Pedagogical Strategies of Freedom in the Philippines," Ph.D. Diss. Drew Theological School, 2023, 182.

회의/프로그램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모임장소 제공한 사람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지방회/연회 행사

날짜 _____ 시간 _____ 장소 _____

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_____

인도자들 _____

약정 현금 액수 _____

2025년 12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에이즈의 날		장애인의 날			
7	8	9	10	11	12	13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인권의 날			
14	15	16	17	18	19	20
강림절 세 번째 주일				국제 이주자의 날		
21	22	23	24	25	26	27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	관자(Kwanzaa) 시작	
28	29	30	31			
			새해 전야			



12월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사랑과 실천을
어떻게 알고 행하고 있나요?

핵심 주제: 상처받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환대를 나누고 있나요?



준비물

- 여러 가지 색깔의 마커, 볼펜, 연필이 담겨 있는 바구니
- 색 도화지
- 필기를 할 수 있는 흰 종이 혹은 밑줄이 쳐 있는 노트
- 한 사람이 네 장씩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끝에 있는 사면체(삼각형 피라미드) 밑그림을 사용하여 녹색 종이에 복사
- 읽기 자료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성경
- 비디오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
- **온라인 모임:** 모임 전에 읽기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모임에 참여할 때에 쓸 종이, 펜, 그리고 다른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라.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가지, 얇게 썬 오렌지, 크랜베리, 솔방울, 팔각(star anise)과 물을 번트(Bundt)나 튜브 모양의 팬에 얼려서 얼음 화환을 만들라. 이 얼음 화환을 모임 동안에 언 채로 잘 보관해 두었다가 모임을 마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얼음 화환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의 동영상을 참고하라. youtu.be/zApb1MvQhx0.



모이기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모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라. 화장실을 가거나, 물이나 간식을 가져갈 시간을 주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나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하라. 참가자들이 시간과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공동체로 부르심 (5 분)

아래의 인용 글을 참여자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프로젝터로 보여 주거나 인쇄물로 나누어 주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옆 사람과 묵상을 나누거나 개인별로 묵상 내용을 적어 보게 하라.

이 인용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 우리는 지배에 저항하고, 억압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 우리는 자유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 행동은 자유를 실천으로서 사랑의 증언이다.” - 벨 훅스¹



성경 말씀 나누기 (2 분)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요한일서 4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하라. 성경 읽기를 할 때 매달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



묵상 (3 분)

사랑은 우리가 믿음과 사회적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개념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이룬 공동체와의 관계보다 그 무엇이 더 강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관하여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려는 충동 즉 사랑을 쉽게 여기고, 소화시킬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랑이 미리 포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일을 쫓고 있다. 우리는 실천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무 책임감도 없이, 사랑을 단지 행복한 느낌으로만 여기거나, 학대를 받는 상황에 머물러 있게 만들거나, 혹은 사랑의 대상을 오직 가족으로만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랑하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이중의 기준에 익숙하여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광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며 우리 자신의 잔을 채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서로에게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양육과 영감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복합성, 위험 그리고 신뢰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친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자.



세대 간의 이야기들 (15 분)

2023-2024년 텍사스 여선교회의 회장인 **미네르바 브리온즈**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이사인 **애비 구티에레스**는 이주민들을 돕는 섬기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사역자 (deaconess)이며 종교와 인종 위원회의 자료 개발을 위한 이사인 **갈린다 버튼**은 교회가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리스판스 잡지 편집자인 **매리앤 버기즈**는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증오에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번 달의 동영상상을 찾을 수 있다. bit.ly/2025ProgramResourceVideos.



묵상과 나눔 (10 분)

- 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 나는 나를 위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창의적 활동: 프랙탈(fractals) (20 분)

이 활동은 세대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대해 보라.

작가 아드리엔 마리 브라운(adrienne maree brown)은 그녀의 책 「긴급 전략 Emergent Strategy」에서 프랙탈 즉 단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끝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다육이, 솔방울, 눈송이 등의 유형을 통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프랙탈을 본다. 브라운은 소규모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방식은 대규모로 존재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조직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일하는 많은 조직들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한 사람, 하향식 구조, 돈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갈등 문제에 대한 파괴적인 방법, 견디기 어려운 작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당면한 이슈에 대해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가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유형들을 만들어 낸다. 나는 어떤 유형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큰 움직임이 되는 것을 보아 왔다.

- 탈진(burnout), 과로, 저임금, 비현실적인 기대치들
- 조직과 분리되어 가는 움직임
- 움직임을 방해하는 사적인 일
- 특히 돈의 방향에 의해 표류하는 선교
- 의사 결정을 못하는 무능력에 의한 침체²

우리들이 여성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들이 소규모로 실천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대규모로 확대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프랙탈 성탄 나무 만들기

녹색 종이에 프랙탈 모형을 복사하라. 성탄 나무의 장식품(ornaments)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색으로 프랙탈 모형을 복사할 수도 있다. 크기를 염두에 두라. 그림의 크기를 작게 시작할 수 있고, 각자의 그룹이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복사하라. 필요에 따라서 이 그림을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다. 각 참가자에게 모형을 여러 장 가져가서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랑의 실천사항을 한 가지씩 적게 하라. 모형을 따라 자르고 풀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모형을 접으라. 모형 네 개를 완성했다면, 하나씩 붙여서 큰 피라미드로 만들라. 마지막으로 그룹의 다른 참가자들의 프랙탈과 합쳐서 나무를 완성하라. 그룹으로 더 많은 프랙탈을 만들수록, 더 큰 성탄 트리가 될 것이다.



마무리와 결단 (5 분)

이제 얼음 화환을 모임 장소로 가지고 와서 전체 그룹에게 보여 주라.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 온 상징으로서 얼음 화환을 바라보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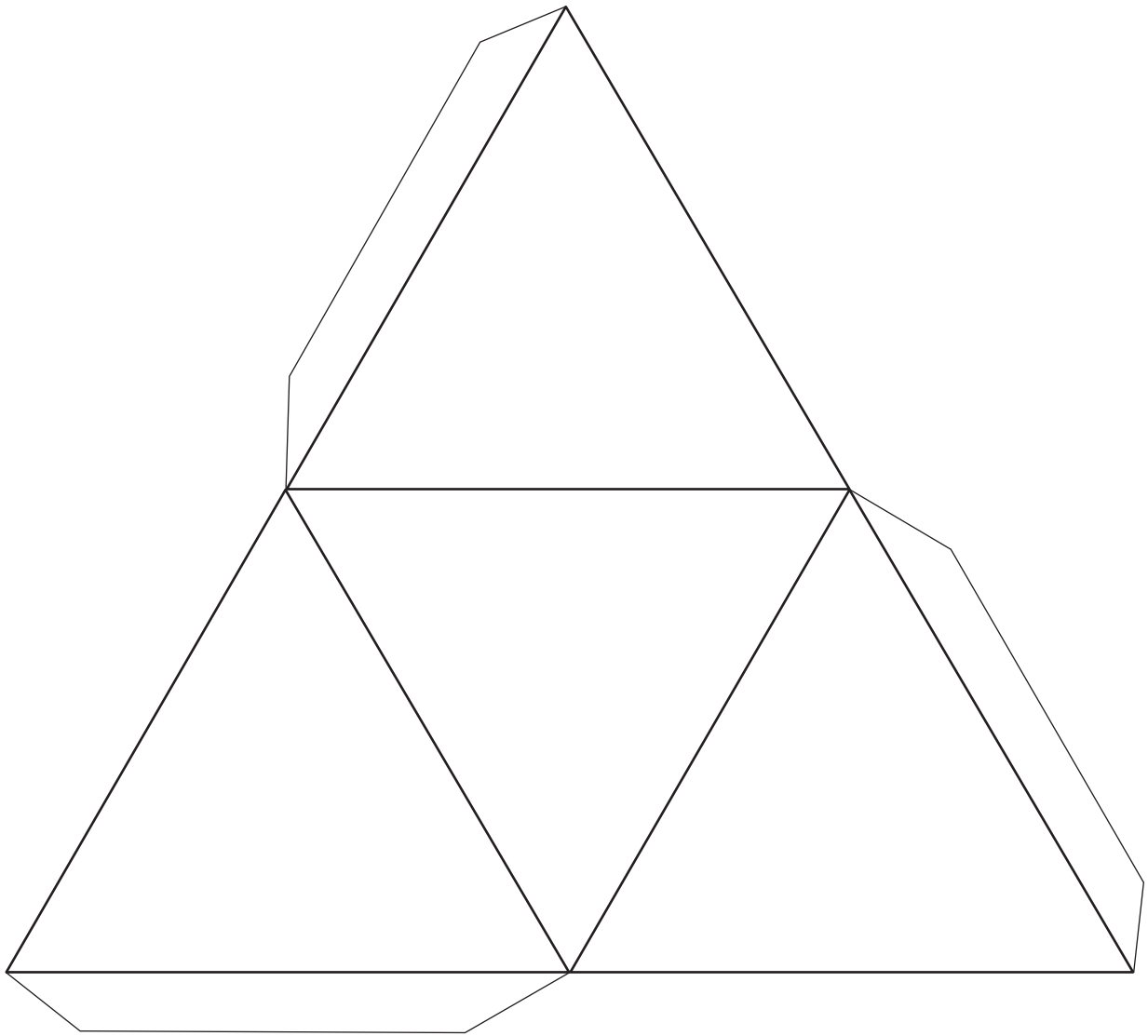
이 얼음 화환 안에는 정지된 것들이 있지만, 얼음 화환의 물에 태양이 비추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새로운 상태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물의 상태의 변화도 인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실천을 하기 위해 어떤 그릇에 담아내든지 형태를 갖추고 다가오는 세대에게 계속 영감을 불어넣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여정을 계속 하면서,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추구하면서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미주

1. 벨 hooks, “사랑, 자유를 향한 연습,” 유니테리안 유니버설리스트의 사회정의 대학, 2016년 5월호. bell hooks, “Love as the Practice of Freedom,” Unitarian Universalist College of Social Justice, May 2016, uucsj.org/wp-content/uploads/2016/05/bell-hooks-Love-as-the-Practice-of-Freedom.pdf, 5.
2. 아드리엔 마리 브라운, 「간접 전략: 변화를 형성하기, 세상을 바꾸기」, adrienne maree brown, *Emergent Strategy: Shaping Change, Changing Worlds* (Chico, CA:AK Press, 2017), 52-53.

사면체 (삼각형 피라미드, Tetrahedron Triangular Pyramid)



저자 소개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 목회학 석사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본부의 영적 성장과 형성 전문가(the Spiritual Growth and Formation Specialist)이다. 노라는 사역을 통해 개인 묵상, 공동체 관계 연결, 영혼 돌봄, 그리고 정의 실천 등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길러내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일하기 전에 연합감리교회의 청년 선교사(Global Mission Fellow)로서 모국인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섬겼다.

노라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 대학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하면서 기독교 사회 윤리, 후기 식민주의와, 해방 신학에 대한 공부도 하였다. 그녀는 마운트 홀리요크 칼리지(Mount Holyoke College)에서 사회학과 교육학 학사를 마친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그녀는 현재 뉴욕 브롱크스의 레나페(Lenape)에서 남편과 아기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페이 월슨, 교육학 박사

페이 월슨은 작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페닌슐라-델라웨어 연회(Peninsula-Delaware Conference)에 속한 로우어 쇼어 지방회(Lower Shore District) 여선교회에서 전직 회장이었고 현재는 회계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현재 메릴랜드주 관티코에 있는 프렌드십 & 시온 산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장이다. 또한 그녀는 이 교회의 음악 감독(music director)으로서 온 세계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 음악 가르치는 일도 좋아한다.

페이는 21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의 직원이었다. 그녀는 전국에서 열리는 선교 학교에서 가르쳤고 14가지 주제에 대한 선교 학습 자료를 쓰기도 하였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의 총회 인종관계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에서 4부로 제작한 동영상 시리즈인 ‘생명을 살리는 대화: 인종, 정의, 인간의 성’과 함께 쓰이는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시작된 1869년과 같은 해에 세워진 월슨 여자 대학일 때 졸업생으로서, 페이는 일생동안 여성과 소녀들의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일해 왔다. 그녀는 세 딸들의 어머니며, 네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메릴랜드 주의 솔즈베리(Salisbury)에서 남편과 살고 있다.

2026년 선교 약정 헌금 예배

물과 믿음으로

목적

선교 약정 예배를 통하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풍성하게 헌금하는 것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선교 약정 헌금을 드림으로써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거나 새롭게 헌신하게 하도록 물을 사용할 것이다.

예배를 드릴 환경 설치

푸른 색으로 강단을 만들어 보라. 여러 가지 크기의 유리그릇이나 유리 꽃병을 사용하라. 성경책은 요한복음 4장 1-15절이 있는 쪽을 펼쳐 놓고, 세례 언약 예문은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책 「찬송과 예배」 29쪽을 펴 놓으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작은 초의 빛들이 더해지게 함으로써 모인 사람들이 물병을 통해 빛의 움직임 볼 수 있게 하라.

준비

선교 약정 예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약정 예배문 전체를 미리 읽어 보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약정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메모해 두라.
- 이 예배를 위하여 추천 찬양 목록에 나와 있는 찬양곡들을 미리 들어 보고 어떤 곡들을 사용할지 혹은 인도자가 선택한 곡들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하라.
- 아래에 있는 준비물들을 모두 모으라.
- 예배 제단을 꾸미라.
-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4:1-15을 읽을 담당자를 정하라.

준비물

- 인원 수에 맞게 선교 헌금 약정 카드 (uwfaithresources.org/prodDetail.cfm?productID=10261&catid=2196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펜
- 마커
- 준비물을 담아 둘 바구니

추천 찬양 목록

CCLI와 One License 허가를 받은 노래는 CCLI와 One License 노래들은 교회 모임에 한에서 프로젝터로 벽에 비추거나 화면으로 함께 볼 수 있다. 가사를 출력 하거나 녹음을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동영상은 인도자/찬양 인도자들이 곡조를 맞추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룹 모임에서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 기기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CD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세례에 대한 찬양들:

“나를 물가로 데려다 주오 (Take Me to the Water),” *Worship and Song*, #3165
“기도하러 강가로 내려가자 (Down to the River to Pray),” *Worship and Song*, #3164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Blessed Assurance),”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287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127

세례 언약 갱신에 대한 찬양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304
“생명수 (Living Waters),” CCLI 라이선스 #11221925 (Tune: youtu.be/LA9UfBEHciY)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Come to the Water),” (Tune: youtu.be/JeLFBw-bGxw)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CCLI 라이선스 #11221925 (Tune: youtu.be/Y-4NFvI5U9w)

온라인 예배 준비물

- 인도자는 집에 성경, 초, 작은 물 그릇으로 작은 제단을 설치하라.
-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라.
- 추천 찬양 목록 중에서 공동체, 화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충만하게 담고 있는 찬양을 골라서 익숙해지도록 들으라.



모이기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와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회원들이 모이게 하라. 각 회원마다 펜과 선교 약정 헌금 카드를 하나씩 챙기라고 말하라. (펜과 카드는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참여자의 의자나 테이블에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한다. 바구니나 마커 세트도 사용하기 가까운 곳에 놓는다.)

환영하기

인도자나 말은이는 다음의 내용을 읽는다.

물은 세례와 다시 태어남, 치유와 갱생, 창조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물은 진실로 선물입니다. 물의 밀물과 썰물 그리고 파도와 물결은 물의 활력과 삶을 지탱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물은 신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야기들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감사로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던 이야기까지 물은 항상 삶을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신약 성서의 예수의 세례, 눈 먼 사람을 고치심, 그리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물은 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도 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물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우리는 깨끗케 하시는 홍수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받고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물이 상징하는 변화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환영하기에 사용된 글은 애슐리 대inyew (Ashley Danyew)의 “예배 계획의 주제: 물 (Worship Planning Theme: Water)”에서 영감을 받았다. 2024년 6월 28일에 접속함. ashleydanyew.com/posts/2017/worship-planning-theme-water.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다음 언약을 교독함으로 시작합니다. 굵게 표시된 다같이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인도자: 오늘 우리는 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성령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결단을
 새롭게 하려고 물가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다같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강은 흐릅니다.**
 주님의 성령은 주의 뜻대로 흐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자: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막거나,
 우리가 성령의 방향을 바꾸려 하거나,
 우리는 생명을 주는 샘물로부터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같이: **우리는 메마르고 목이 마릅니다, 오 하나님.**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인도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같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인도자: 이 물 위에 임하소서.

다같이: **이 물 위에 임하소서.**

인도자: 이 물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의 물방울이 되게 하소서.

다같이: **이 물이 저희에게 주님의 의와 정의를 기억하게 하소서.**

인도자: 이 물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이 물이 저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소서.**

인도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불 같은 성령님, 물 위의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세례 예문 IV에서 따옴. © 1976, 1980, 1985,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사에 모든 저작권이 있음.
허가 받고 사용함.

각 참석자들은 주의 제단 앞으로 나와서 새로워짐의 상징인 물을 사용하여 물에 담근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나 손 등에 십자가를 긋는다. 이 때 인도자나 말은이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온라인 예배 도움말: 찬양을 들은 뒤에, 말은이가 위에 나온 예배 환영문으로 인도한다. 각 회원은 각자 준비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었다가 뺀 손가락으로 자기 이마나 손 등에 십자가를 긋는다.



묵상: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읽은 많은 이야기에서 물은 새로워짐(갱생)과 치유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4:1-15 말씀을 들으라.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 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보셨다.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은 당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합당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동네에서 예수와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처음 사람이었다. 당시 사회적 기대에 걸맞지 않더라도, 그녀는 모든 세대마다 어떻게 여성이 교회에서 중심역할을 해 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토의

개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해 보라. 어떻게 나는 지속적인 지원을 찾아내고 제안할 수 있을까?

교독문: 선교에 대한 부름을 새롭게 들으라.

교독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자: 예수님, 제가 우물로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르다처럼 집안 일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했던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같이: 제가 우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그리움,
깊은 갈망의 강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이 목마름이
주님의 생명의 물로
온전히 채워져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인도자: 저는 주님 당신이 **우물이심**을 압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공화와, 넘치는 사랑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다같이: 주님은 치유하는 물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흘러 넘쳐서 못 미치는 곳이 없으신 물입니다.
 내 삶의 폭풍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고요함이 곧 주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나 갈망하는
 신실함
 온전함
 은혜로운 임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내와
 용기가 주님이십니다.

다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 전부를 살아있는 재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풍성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독문은 도나 버틀러(Donna Butler)의 “우물가의 여인”에서 발췌한 것임. org/prayer/woman-at-the-well.

온라인 예배 도움말: 이 교독문 화면을 공유하라. 두 사람에게 인도자와 다같이를 교독하게 부탁하라.
 나머지 온라인 참석자들은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다같이**와 **다함께** 부분을 함께 읽게 하라.

선교 약정 헌금 드리기

예배 장소에 들어올 때에 받은 선교 약정 헌금 카드에 이름, 헌금 액수,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적은 뒤
 제단 위에 놓인 헌금 바구니에 넣게 하라.

*배경 음악으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과 예배, 127장) 또는 “생명수 (Living Waters)”를
 틀어 놓는다.*

온라인 예배 도움말: 회원들에게 선교 약정 헌금 카드를 작성하고 복사본은 개체 여선교회, 지방회,
 연회, 또는 온라인 여선교회 가운데 한 곳으로 보내게 하라.

회원들이 선교 약정 헌금 카드 작성을 하는 동안 앞서 제시된 추천 찬양 목록 중 하나를 1-2분 동안
 틀어 놓으라. 헌금 카드 작성을 마쳤으면, 참석자들에게 잠시 카드를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라.
 모두가 기도를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을 자신들이
 신뢰한다는 긍정의 상징으로서 찬양곡에 맞추어 선교 약정 헌금 카드를 “흔들어 보게 할” 수 있다.

여선교회 온라인 사이트 uwfaith.org에 들어가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Where it is Needed Most)” 메뉴에서 헌금 보낼 곳을 선택한 후 오늘 드린 선교 약정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매달
 약정 헌금을 드리게 하라. 각 회원들의 선교 약정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의
 기초가 된다.



마치는 기도

물로 나아가 생명의 선물을
서로서로 나누게 하소서.
어떤 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어떤 이를 살게 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생명수가 여러분 자신임을 아십시오.
나누고 양육하고 자라고 세우는 일에
이 물은 풍성합니다.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여러분 입니다.
아멘.

마치는 찬양

이 예배를 위한 추천 찬양 목록 중 한 곡을 선택하여 부르면서 마치라.

온라인 예배 도움말: 한 사람에게 마치는 기도를 읽도록 부탁하라. 기도를 마치면, 예배 추천 찬양곡들 중 하나를 들려 주거나, 인도자가 정한 찬송 곡을 참여자 중 한 사람에게 부르게 하라. (음소거를 한 상태로 다른 회원들도 찬송가를 같이 부를 수 있다.) 찬양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팔을 흔들고 손뼉을 치고 후렴구는 찬양을 같이 하게 격려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에 모두가 담대하게 선교 헌금과 시간을 약정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추가 자료

애슐리 대이뉴, ashleydanyew.com/posts/2017/worship-planning-theme-water

emmanuelthousandoaks.org/womanatthewell

새년 프리디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재정과 선교 헌금에 대한 책임자이다.

2025년 기도와 절제의 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여성들

여는 말

2025년 기도와 절제의 날에 드리는 헌금은 국제적으로 경제 개발과 소상공 프로젝트, 직업 훈련, 삶의 기술, 그리고 생계 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이 기금은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연합감리교회 연회 여성팀들의 사역을 후원할 예정이다. 모아진 기금은 이 사역을 위해 일하는 연회 여성 코디네이터들과 지역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도 쓰일 것이다.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인도자는 “수공품(handmade)”과 “휴대품(handheld)” 개념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우리의 두 손 들어올리기, 손가락 펼치기, 손을 자기 가슴에 얹기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모든 일들을 인식하게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영향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면서 **붙들려**는 손이다. 올 해의 기도와 절제의 날 예배에서 우리는 페루 역사와 사역들을 배우면서 페루에 사는 우리 자매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페루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기도와 절제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전세계 여성들에게 힘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준비할 내용

낭독자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명의 낭독자들이 필요하다. 낭독자 1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분명하게 묻는 역할을 한다. 낭독자 2와 3은 예배의 역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예배 전에 이들에게 전체 예배문을 보내주어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참석자들을 위한 예배문을 인원수대로 준비하라.

선택 사항: 인도자는 역사 부분의 경우에 낭독 내용을 한 여성 회성에게 연기를 부탁함으로써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인도자는 역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연구해서 이해를 돕는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 발표 자료를 사용할 때에 unsplash.com 같은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진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음악

이 예배의 음악 부분에 관하여 인도자는 피아노와 반주자 혹은 미리 녹음된 음악이나 찬송가 또는 악보가 필요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에서 263장 “바다와 하늘의 주”와 83장 “주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두 곡을 부를 것이다. 헌금 송으로는 헌금을 드리는 동안 페루의 찬양곡을 준비하도록 한다.

예배실 꾸미기

의자는 둥근 모양으로 놓는다. 예배실 가운데에 제단과 두 개의 바구니를 강조하여 꾸민다. 하나는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담고, 나머지 하나는 헌금을 담기 위해 사용한다. 중앙 테이블에는 페루 지도, 잉카 문화 예술, 혹은 옥수수과 같은 페루에 관한 물건들로 장식하라.



준비물

여러 색깔의 도화지, 마커, 가위가 필요하다. 활동 시간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손 모양을 그리고 자르기 위하여 필요한 도화지를 인원 수에 맞게 준비하라.

예배 순서

- 여는 기도
- 묵상
- 중보 기도
- 찬양
- 묵상
- ‘기도와 절제의 날’ 소개
- 페루의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 활동: 손 모양 만들기
- 헌금
- 마치는 찬송
- 파송

예배 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기도와 절제의 날’ 소개 시간과 페루의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순서를 예배에서 빼라. 헌금 순서 후에 프로그램을 마치라.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도움말: 참가자들에게 예배 전에 색도화지, 가위, 그리고 마커를 준비해서 온라인 화면 가까이 두라고 부탁하라. 예배 중에 참여를 요청하는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카메라 화면에다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손을 들어 보라고 요청하라. 참석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손 모양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라.

예배 & 프로그램



여는 기도

인도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믿음의 자매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손에 베푸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낭독자 1: 우리가 목상을 할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매들의 은사와 은혜와 지도력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도구로 섬기려는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페루에 사는 우리 자매들의 성장하는 믿음과 사역을 축하하고 알고자 합니다.

낭독자 2: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88:9)
(두 손을 하늘로 펼쳐 올리며)

낭독자 3: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시편 134:2).
(손을 들어 올리며)



목상

인도자: 이사야 6장 8절을 펴 봅시다. “그 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페루와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섬기고 주며 맞이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신을 준비하고, 손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인도자가 손을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올려 주십시오.

낭독자 1: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자는 가슴에 손을 얹는 시범을 보인다.) 우리는 페루와 세상의 다른 곳에 사는 여성들이 맞서고 있는 어려움들과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본부의 해외 사역의 책임자 타티아나 드와이어(Tatiana Dwyer)는 말합니다. “비록 이 프로젝트들이 작게 보인다고 해도, 그 영향은 매우 큼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

- 인도자:**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페루의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올립니다. 우리가 번두리로 밀려나고 놀림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소서.
- 모두:** 우리들과 우리 자매들에게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용기를 주소서.
- 낭독자 1:** 믿음의 자매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하나로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일하게 하소서.
- 모두:** 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kin-dom)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어 변화의 주체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엄과 존경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소서. 아멘.

찬양: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과 예배」 263장

“바다와 하늘의 주” 찬양을 부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자신의 손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시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거나, 기도손을 하거나,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두 눈을 감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묵상

낭독자 1: 다같이 침묵하면서 “바다와 하늘의 주” 찬양에서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 낼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용기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느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겠다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길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묵상을 위한 침묵 시간을 주라.)

“기도와 절제의 날(The Call to Prayer & Self-Denial)” 소개?

인도자: 해마다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2025년 헌금은 국제적으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경제 성장과 소상공 프로젝트, 직업 훈련, 삶의 기술, 그리고 생계 훈련 프로젝트를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페루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금, 계획, 시행의 사례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들이 2025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하여 드린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잘 보여 줍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해외 선교란 무엇인가요?

인도자: 올 해 우리의 헌신적인 헌금은 가장 취약한 시골 지역에게도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 낼 작은 종잣돈(seed money)을 후원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낭독자 1: 그리고 우리 기금은 중앙 연회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돕는 여성교회 본부의 선교 코디네이터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또한 해외 기금은 전 세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팀들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 팀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 어린이, 가정, 그리고 공동체 회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끕니다.

인도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 중에는 프로젝트들이 그 나라 팀들에 의하여 생겨나고 세대별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선교사들(Regional Missionaries)에 의해 지도를 받습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지역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인도자: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선교사들은 주체적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현지 여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여성들의 사역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Andrea Reily Rocha Soares) 지역 선교사로부터 지역 선교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2025년 올 해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낭독자 1: 2025년에 “기도의 날” 그리고 기금... 잠시만요. 정확하게 “기도와 절제의 날”이란 무엇인가요?

인도자: “기도와 절제의 날”은 125년 이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헌금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절제의 날”은 매 해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둬으로써 지킵니다.

낭독자 1: 2025년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인도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여성들”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담대한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가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계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에 따르면, 페루에서 우리의 담대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선배들이 싸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싸움 중 하나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예배 중 이 순서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는 행동은 거부를 나타내고, 두 팔을 벌리는 동작은 환영으로 표현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도자가 페루의 간략한 역사를 더 연구하여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준비할 내용을 참고하라.

낭독자 2: 19세기 말까지 페루의 여성들은 3학년까지 밖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였던 엘비라 가르시아 이 가르시아(Elvira Gracia y Gracia), 마리아 헤수스 알바라도(María Jesús Alvarado), 그리고 테레사 곤잘레스 데 페닝(Teresa Conzales de Fanning)와 같은 여성들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 유지(status quo)에 저항하면서 이것을 끝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여성들과 여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학교와 대학들은 자신의 손, 학교의 문,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엘시 우드, 선교사, 교육자,
마리아 알바라도 학교 설립자.
사진은 보스턴 신학원에서 제공

낭독자 3: 그리고 선교사들은 풀뿌리(grassroots) 같은 여성들과 연합하였나요?

낭독자 2: 선교사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감리교 에피스코팔 선교사이자 목사의 딸로서 나중에 자신의 의지로 선교사가 된 엘시 우드(Elsie Wood)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이 목적을 마음에 품고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페루로 돌아왔을 때에, 엘시는 이 일에 이미 뛰어난 페루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학교 체계를 계획하였는데 이 학교는 1906년에 정식으로 리마 여자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낭독자 3: 감리교 학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첫 해 교육부터 마지막 해까지 페루의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일은 1891년에 카야오 고등학교 (현재는 아메리카 대학, Colegio America), 1913년에는 후닌의 앤디안 학원 (지금의 안디노 대학, Colegio Andino), 1915년에는 라 빅토리아의 앵글로 아메리칸 학교 (지금의 라 빅토리아의 아메리카 대학, Anglo-American School of La Victoria)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낭독자 2: 하지만 페루에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60년 대까지 여성들의 높은 문맹률과 같은 교육적 격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페루의 감리교 여성 연맹에서는 1968년에 리마의 비타르테(Vitarte) 지역 여성들에게 글 가르치는 수업을 열었습니다.

낭독자 3: 오늘까지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여성과 소녀들은 서로서로에게 수공예 기술, 재정에 대한 공부, 그리고 소상공(small business)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낭독자 2: 수공예는 언제나 모임의 한 부분입니다. 감리교 여성들이 모임 때에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으로는 일을 하곤 합니다.

낭독자 3: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의 초대 회장인 마리아 로사 리베이로(Maria Rosa Ribeiro)에 따르면, 카야오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과 한 달에 두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옷들을 바느질” 하려고 모입니다.

낭독자 2: 1930년에는 감리교 여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옷들을 팔아서 학생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공부하러 갈 차비를 모으려고 “바자회(bazaar)”를 조직했습니다.

낭독자 3: 여성들이 지금까지도 수공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별 연구(Gender studies)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일을 하는 여성들이 옷을 박음질하거나 뜨개질과 같이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960년대에 노동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여성들은 이런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자 2: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은 수 년 동안 지금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인 여선교회 조직과 동역하면서 여성들에 의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독립성을 길러내기 위하여 재봉 훈련과 드레스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지역 사회와 가정의 삶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지금 페루 감리교 여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낭독자 3: 오늘날 페루 감리교 여선교회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공예의 운명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쓰려고 만들었다면, 지금은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동맹을 맺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낭독자1: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의 회장인 애니 솔리스(Annie Solís)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낭독자 2: “여성들의 숨씨는 놀랍습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공동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경험이 선배 회원들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변화 개발 프로젝트(Transformative Development Project)”를 알리고 있습니다.”

낭독자 3: 이 유산은 많은 방법 중에서 사업 계획, 회계, 마케팅과 판매 전략, 그리고 자본 형성 능력을 훈련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코마스 감리교 교회에서 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 애니 솔리스 사진 제공.

낭독자 2: “변화 개발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에 조직이 되었고, 지방회 여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워크숍들은 현실에 기초한 주도적 사업을 찾아내어 기업가 정신과 여성들, 그들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존엄성을 촉진시키고자 한다”고 솔리스가 말합니다.

인도자: 이따로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각 교회 여성교회에서 2025년에 25달러의 약정 헌금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해외 선교와 세계 곳곳의 여성들과 소녀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역을 후원하게 됩니다.

낭독자 1: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만큼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인도자: 모든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것 입니다.

활동과 봉헌

인도자: 색도화지, 마커, 그리고 가위를 나누어 드립니다.
(안데스나 페루의 조용한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 놓으라.)

순서 1: 마커로 두 손 테두리를 그리십시오.
(회원들이 손가락을 따라 그리는 동안 기다린다.)

순서 2: 자기 손을 그린 종이를 왼쪽 사람에게 넘겨 주세요.
(모두가 그릴 때까지 기다린다.)

순서 3: 옆 사람으로부터 받은 손 그림 위에 페루의 여성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적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기도를 적는 동안 기다린다.)

순서 4: 손 그림 한 쪽에 기도를 적거나 그림 그리기가 끝나면, 왼쪽 사람에게 그 손을 넘겨주세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기다린다.)

순서 5: 이제, 그려져 있는 손가락 모양대로 오리세요. 그리고 왼쪽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전해주세요.
(가위로 손 모양 오리기를 마치는 동안에 페루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들려주라.)

순서 6: 손 모양을 다 오린 후 새 손을 받게 되면, 올 해 기도와 절제 날의 부르심에 나는 얼마를 후원하기로 결단하였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헌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순서 7: 페루 음악을 들으면서 헌금 액수를 적는 동안에, 저는 두 개의 헌금 바구니를 돌릴 것 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약정 금액이 적힌 손 모양을 드릴 바구니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을 드릴 바구니 입니다.

낭독자 1: 손 만들기 활동을 마쳤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손을 올리거나 손을 가슴에 얹는 동작을 반복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여선교회에서는 bit.ly/CallToPrayerGift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수표일 경우 아래의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United Women in Faith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777 United Nations Plaza, 11th Floor
New York, NY 10017
Attn: Call to Prayer 2025

파송

인도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를 떠나려고 하오니,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들이 넘치는 긍휼의 심장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번두리로 밀려나고 억눌린 사람들의 정의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페루 자매들과 세상 곳곳에 있는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복을 내려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연대감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소서. 아멘.



마치는 찬송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 83장 “주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찬양을 부른다.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에서 대안으로 부를 찬양들

“예수님의 두 손 친절하신 손,” 176장

“주 호숫가에 오셔서,” 90장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310장

예배에 사용된 역사에 대한 자료

Woman's Missionary Friend, Vol 28 (Boston: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6-1897) books.google.com/books/about/Woman_s_Missionary_Friend.html?id=E6bNAAAAMAAJ.

추가 자료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해외 사역 책임자인 타티아나 드와이어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가 제공하였다.

메리 베스 쿠달은 작가, 교사, 그리고 세 명의 멋진 청년을 둔 엄마이다. 그녀는 국제적인 우정, 여성들의 인권, 교육, 창의력, 그리고 커피에 대하여 열정적이다.

미주

1. “우드, 엘시 Wood, Elsie (1868-1954),”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March 20, 2020, bu.edu/missiology/2020/03/20/wood-elsie-1868-1954.

2025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프로그램 교재는 성장 혹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한 믿음의 행진에 대하여 탐구하려고 한다. 우리의 신앙을 물의 여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 이야기들은 전진과 후퇴, 절정과 낙하, 그리고 고여 있는 연못과 폭풍의 여정이 투영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교재는 여성들의 대화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머니들과 딸들, 자매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식구들과의 인터뷰 영상에는 그들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고 도전을 했던 경험들이 잘 담겨 있다.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다양한 세대로부터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게 될 것이다.

월별 모임은 성경 공부, 비디오 인터뷰를 통한 세대 간의 이야기, 묵상 시간, 그리고 창의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노라 아세디요 커닝햄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본부의 영적 성장과 형성 전문가이다. 페이 월슨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며 세계 선교부의 직원으로 20년 이상 섬겼다. 이 두 명의 저자들은 2025년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 내고 있다.

여러분은 이 교재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며, 여선교회 자매들과 연결되길 원한다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가입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uwfaith.org | 888-409-8137